

설교와 설교자: 온라인

교재: <설교와 설교자>(마틴 로이드 존스, 복 있는 사람)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가능하면 한영대역)

기간: 2015년 3월 9일부터 8주

내용: '설교와 설교자' 강해 17개를 매주 2개씩(마지막 주 3)을 수강하고 2주마다 수강 여부(4개 혹은 5개)를 문자로 보냄. 또한 다음의 4책을 읽고 역시 2주마다 밑줄 치며 읽은 부분을 7-8쪽 타이핑 쳐서 제출함

1. <설교와 설교자>(존스): 16시간
2. <건강한 사역자이십니까>(위어스비)
3. <하나님의 일꾼과 섬김>(위어스비)
4.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김남준)
5.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김남준), 이 책은 읽되 과제 제출 안 해도 됨

위의 네 책을 다 읽었음을 학기말에 서명해서 제출해야 함.

목표: 설교가 무엇이며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여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설교와 설교자: 오프라인

교재: <설교와 설교자>(마틴 로이드 존스, 복 있는 사람)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가능하면 한영대역)

교수: 정동수 목사

기간: 2013년 9월 28일부터 2014년 1월 11일까지 총 16주

내용: '설교와 설교자' 강해를 다음의 4권의 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스케줄로 수강하고 과제를 제출함.

1. <설교와 설교자>(존스): 16시간
2. <설교의 준비와 전달>(낙스): 8시간
3. <하나님의 일꾼과 섬김>(위어스비): 4시간
4. <목사론>(스펠전): 4시간

학기 중 과제:

1. <건강한 사역자이십니까>(위어스비)
2. <하나님의 일꾼과 섬김>(위어스비)
3.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김남준)
4. <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김남준)

이 네 책을 다 읽었음을 학기말에 서명해서 제출해야 함.

목표: 설교가 무엇이며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여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시험: 별도의 시험은 없고 16주 동안 매주 <설교와 설교자>(존스)를 한 장씩 읽고 A4 한 장에 요약한 뒤 자신의 느낌을 반 장 정도 적어 제출함. 학기말에 강의에서 배운 원리에 따라 설교문 1편을 제출함.

수강료: 10만원

의문이나 연락은 webmaster@KeepBible.com을 이용하기 바람.

(*) 이것은 오프라인 강좌로서 9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사랑침례교회에서 2시간 동안 열리며 수강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이 강좌를 꼭 듣기 원하지만 멀리 지방에 있거나 다른 특별 사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 수업을 원하는 경우 미리 담당 교수와 의논한 뒤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함. 강의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모두 사이트에 올릴 것임.

(***) 이 강의를 들은 사람만 2014년 봄에 열리는 '설교 코칭' 강좌를 수강할 수 있음. '설교와 설교자', '설교 코칭' 이 두 과목은 본 신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며 따라서 언변에 능력이 없고 설교문을 작성할 수 없는 사람은 이 과목들을 수강해서는 안 됨. '설교 코칭'에서는 수강자들이 '설교와 설교자'에서 배운 대로 설교한 뒤 교수와 학생들이 비평하여 고치게 하고 또 다시 다른 것을 설교하게 하여 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것이므로 목회자가 되려는 분들에게 이 두 과목은 필수 과목임.

(****) '설교와 설교자'의 경우 이번 여름 방학부터 학기 중 과제를 시작해도 좋으니 미리 미리 책들을 구입하여 읽되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와 <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를 먼저 읽기 바람.

설교와 설교자 개요

I. 마틴 로이드 존스(1899-1981)

1. 26세에 영국 왕립의학협회에서 의학박사학위
2. 칼빈주의 감리교 배경, 회중교회
3. 1925년부터 2년 동안 목사의 소명에 대해 회의하다가 1927년부터 11년 반 동안 남웨일즈 교회 목사, 정규 신학을 하지 않은 목사
4. 1939년부터 1961년까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캠벨 모르간과 공동 사역하다가 모르간이 1943년에 은퇴한 뒤 홀로 목회함(총 22년). 그 이후에도 웨스트민스터에서 8년 정도 더 있음(총30년), 1968년 웨스터민스터에서 은퇴, 설교자로 40년 이상 섬김, 삶 자체가 설교자의 삶
5. <설교와 설교자>는 1969년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6주 동안 강의한 내용

II. 김남준

1. 우체국 공무원, 1993년 7명 성도로 교회 시작, 2000년 1000명 이상의 성도
2. 베스트셀러 작가
3. 한국인으로서의 목사와 설교에 대해 가장 훌륭한 책을 저술함

III. 강사 정동수

1. 인하대 공과대학 교수, 2008년 8명 성도로 교회 시작, 2013년 350명 성도(사랑침례교회)
2.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주 번역자, 미국 펜사콜라 성경대학 신학 석사(성경 강해)
3. 2000년에 시작한 1차 목회 실패, 오랜 방황 끝에 로이드존스와 김남준 목사 등의 책들을 읽고 목사의 소명, 책임, 설교의 본질을 익히고 이들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음. 다만 대부분의 설교와 목사 관련 책들의 저자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개 장로교의 칼빈주의자들이므로 성경 해석에서는 전혀 다름.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설교와 설교자가 무엇인가에만 동의함. 한편 이들의 설교 자체는 책만큼 감동을 주지 못함. 이론과 실제의 차이

IV. 내용

1. 설교라야만 한다
2. 대안은 없다
3. 설교문과 설교 행위
4. 설교문의 형식
5. 설교 행위
6. 설교자
7. 회중
8. 메시지의 성격
9. 설교자의 준비
10. 설교문의 준비
11. 설교문의 형태
12. 예증, 웅변, 유머
13. 피해야 할 것들
14. 결단의 요청
15. 함정과 낭만
16.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설교와 설교자 미

설교라야만 한다: 존스

I. 왜 설교에 대해 강의하는가?

- A. 설교는 존스의 평생 사역(40년 이상), 부족함, 실수도 많아서 연구와 토론을 많이 함.
- B. 강의 수락 이유
 - 1. 설교는 사람의 소명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
 - 2. 오늘날 기독교회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진정한 설교이다.
 - 3. 세상이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이 설교이다.
 - 4. 설교는 원래 preaching이다. 선포와 성경 공부의 차이

II. 설교는 정말로 필요한가?

- A. 이런 질문 자체가 교회의 타락과 위험한 상태 반영
- B. 설교 강연에 대한 오해: 방법론, 수단, 방식, 기교 등 No!
- C.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전제와 배경과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

III. 교회에 대한 불신

- A. 설교는 둘째 치고 현 시대에는 교회 무용론이 판을 친다.
- B. 교회 자체가 기독교의 방해물이다(전통주의, 형식주의, 생명력 상실).
- C. 이게 과연 교회인가 하는 데가 수두룩함

IV. 설교에 반발하는 이유, 설교의 지위와 능력이 쇠락한 이유?

- A. 일반적인 이유: 볼드윈 주의(스탠리 볼드윈)
 - 1. 로이드 조지, 윈스턴 처칠 같은 유명한 웅변가 수상 뒤를 이음
 - 2. 전직 수상들을 이기려면 웅변이 별것 아니고 “나는 평범하고 솔직한 사람이다”를 강조함.
 - 3. 즉 웅변가에 대한 불신 조작. “과거에는 스스로 글을 읽지 못해서 웅변가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다 글을, 책을 읽는다. 라디오와 TV가 있다.”
 - 4. 그 결과 웅변과 비슷한 설교도 필요 없게 되었다.
 - 5. 역사의 확실한 사실: 사람을 움직인 영웅들은 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 a. 페리클레스: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군인. 평의회 · 민중재판소 · 민회에 실권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아테네의 최성기였다. BC 450년경
 - b. 데모스테네스: BC 350년경, 그리스 최고의 웅변가, 정치가
 - c. 링컨, 케네디, 레이건, 클린턴, 오바마, 이승만
- B. 교회의 내적인 이유들
 - 1. 성경의 권위 추락, 진리에 대한 신뢰 추락
 - a. 설교의 위대함은 주제의 위대함에서 나온다.
 - b. 그런데 인본주의에 의해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니 당연히 설교의 권위가 떨어진다.
 - c. 이제 설교는 윤리, 도덕 이야기, 사회 정치 이야기로 전락함
 - 2. 위대한 강단꾼들의 등장
 - a. 설교자가 아니라 강단꾼: 헨리 워드 비처, 오순절 은사운동의 각종 쇼 꾀들
 - b. 쇼맨쉽: 원맨쇼, 코미디, 각종 호황 찬란한 형식 등장(베니히, 장경동 등)
 - c. 설교가 오락의 한 형태로 전락함
 - d. 특히 복음(전도) 설교들이 내용 없이 형식과 연출에만 신경 씀
 - 3. 설교문에 대한 오해: 설교문(sermon)과 설교(선포) 개념의 오해

- a. 설교문이 수필의 형태를 띠게 됨: 문학적 수사 기법 사용
- b. 진리보다는 화려함, 매끄러움, 비유, 인용에 의지함.
- c. 설교 대신 '강연' 혹은 '강의'라고 함: <기도에 관한 조용한 이야기>, <능력에 대한 조용한 이야기>
- d. 설교 대신 예배 형식이 강조됨: 예전의 강조, 집례, 각종 프로그램의 증가
 - (1) 노래 증가
 - (2) 교독문 증가
 - (3) 헌금 시간 증가
 - (4) 성가대 시간 증가
 - (5) 목사의 촛불 행렬
 - (6) 영화와 연극
 - (7) 찬양 인도자 시간 증대, 찬양 목사 등장
 - (8) 간증: 유명 인사 초청, 이것은 오락이다.
 - (9) 상담 사역(개인 사역)의 중점
 - (10) 교회의 변화: 강단이 옆으로 밀려남

4.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

- a. 기존의 모든 전통과 결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면 그들과 삶을 공유해야 한다.
- b. 출석 인원의 감소는 교회와 설교 때문이다.
- c. 교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
- d. 정치 개입, 사회 문제 해결, 박애 사업, 외국에도 선교사 대신 그곳 사람들과 섞여 살며 정치, 사회 문제 참여

V. 교회와 목회자의 임무: 하나님의 말씀 선포

A. 주 예수님의 사역: 말씀 선포(주 사역)와 기적과 병 고침(부수 사역)

1. 주 사역: 마4장의 광야 시험 이후, 17절: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기 시작함

- a. 나는 세상의 빛(요8:12),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마6:33).
- b. 열두 사도 선택(마10:6-8)
- c. 공관복음의 광야 시험(눅4장), 마귀가 이 세상 왕국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 거부(눅4:5-6)
- d. 요한복음의 5병2어 기적(요6:15), 왕을 삼으려 함. 도망함
- e. 유업 나누는 이야기(눅12:14), 나는 재판자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 f.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 e. 마28:19-20의 대위임

B. 부활 이후 사도들의 사역

- a. 행1: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8절). 증인은 말하는 사람
- b. 행2: 오순절 날 성령 충만 이후 곧바로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이 누군인가?
- c. 행3: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설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올 것이다. 회개하라.
- d. 행4: 12절: 하늘 아래, 반대자들의 주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행4:20).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행4:31)
- e. 행6: 그리스파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일은 합당치 않다(2).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4). 이로써 교회의 영원한 우선순위가 결정됨
f. 행8: 스테반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선포함(4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선포함(5절)

g.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3:15), 사회복지센터, 놀이터가 아니다.

h. 내게서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맡기고 가르치라(딤후2:2)

i. 말씀 선포(딤후4:1-2)

C. 교회사의 증거: 설교가 쇠퇴하면 교회가 위축된다(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1. 종교 개혁과 부흥의 원동력: 설교의 갱신, 설교가 살아나면 위대한 운동이 일어남

a. 초대 교회

b. 16세기 종교 개혁: 루터, 칼빈, 낙스, 래티머

c. 17세기: 에드워즈, 윗필드, 웨슬리

d. 18세기: 설교의 시대, 이후 스펠전, 무디

VI. 총요약: “설교라야만 한다.” 설교는 교회의 주된 임무이다.

A. 성경과 교회사의 증언

B.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전9:16-17).

설교와 설교자 만

대안은 없다: 존스

- I. 설교의 우선성은 신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옳은 일이다.
- A. 인간의 진정한 필요와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의 필요와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교회의 주된 임무
- B. 사람들은 설교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 C. 인간의 필요: 질병과 가난과 억압 등에서 벗어나는 것
1. 질병에는 육적 질병, 정신적, 도적덕, 영적 질병
 2. 인간의 진짜 문제는 영적 질병
 3. 인간은 질병과 환경의 희생자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된 필요는 아니다.”
- D.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진정한 문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
1. 이것만이 인간에 대한 유일한 설명
 2. 사람은 죄와 범법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엡2:1).
 3. 눈먼 자들이다(고후4:3-4).
 4. 지각의 눈이 멀어 있다(엡4:17).
 5. 어둠에 속해 있다(요3:19; 요일1:8; 엡5:8).
 6.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지’이다. ‘알지 못하는 것’
 7. 사람의 질병이나 환경 문제는 다 죄의 결과요, 타락의 산물이다.
 8. 그것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과 내지는 증상이다.
- E. 구원이란 무엇인가?
1. 진리를 아는 것(딤후2:4; 요14:6)
 2.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사(고후5:19-20), 내용: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3. 행17의 바울,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알려주겠다”(23절): 가르침
 4. 구원은 사람들의 무지를 진리로 해결하는 것, 이런 지식을 줄 때 구원이 임한다.
 5.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다(행20:27): 목사의 사명
 7. 베드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나와 빛에 들어간 자(벧전2:9)
- F. 구원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무지하므로 가르쳐서 듣고 깨닫게 해야 한다.
1. 진실을 들어야 한다.
 2. 그래야 믿고 구원받는다(롬10:14-15, 17).
 3. 그러므로 설교는 교회와 설교자의 ‘고유한’ 책무이다. 설교자만 할 수 있는 일
 - a. 복음의 분배 사역 담당(고전9:17)
 - b.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엡3:8-9).
 - c. 다른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하던 교회의 신비를 알려야 한다(엡3:5-6).
 - d. 교회로 말미암아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려 하신다(10).
 4. 이 위대한 일은 오직 교회만이, 오직 설교자만이 할 수 있다.
- G. 세상과 인류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매개체: 의술, 국가, 타종교, 이단, 심리학, 각종 가르침
1. 인간의 상황 개선하기 위해 고안됨
 2. 조금은 인간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
 3. 어느 정도의 유익과 가치가 있다.

4.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5. 그러므로 교회의 주된 임무는 이런 것들과 경쟁하며 정신 치료, 교육,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6. 이런 것들은 구원의 부산물
 7. 교회의 주된 목적: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끄는 것
 8. 이것 이외의 다른 시도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영적 질병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 a. 증상 완화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인다: 질병의 실체가 가려짐
 - b. 급성으로 맹장염: 수술해야 하는데 진통제만 주면 죽게 됨: 범죄 행위
 9.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주의, 샤머니즘, 코미디 목사, 음악 목사
 10. 현대인들의 진통제: 부의 증가로 인한 사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만사형통, 물질 만능(차, TV, 핸드폰, 집, 옷, 교육, 인터넷): 이런 진통제로 인해 영적인 문제가 은폐된다.
 11. 세상의 다른 것들은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풀 수 없다. 설교 역시 그런 수준으로는 못 본다.
- H. 교회와 설교의 책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다루는 일(수술해 내는 것)
1. 교회는 여러 매개체 중에 하나가 아니다.
 2.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기관이다.

II. 교회와 설교를 위축시키는 일들

A. 사회 복음: 해방신학

1. 예수님은 선동가, 해방가, 혁명가, 위대한 선생
2. 이미 20세기 초반에 시도되어 실패를 맞봄
3. 영국 교회 퇴조의 원인
4. 교회의 목적이 사회 문제 해결이라면 다른 데가 더 잘함.
5. 이런 것을 주장하면 궁극적으로 교회의 쇠퇴가 온다.
6. 현대 사회의 문제: 교회와 설교의 타락
7. 한국의 사회, 도적, 윤리 문제: 교회와 목사의 타락(세습, 간음, 표절)
8. 인간의 역사는 항상 교회의 쇠퇴가 사회 전반의 몰락을 가져옴을 보여 준다.
9. 한때 해결책이라고 하던 인기물이 지금은 다 거품으로 드러남
10. 교회는 유행병을 앓으면 안 된다.

B. 교회의 부흥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1. 교육 기관
2. 의료 기관: 근대 한국의 역사를 보라.
3. 노동 조합
4. 종교 개혁의 결과 문화 혁명, 과학 탐구 및 연구 활발
5. 역사의 위대한 시기는 종교개혁과 부흥 다음에 온다.

III. 모든 사람이 개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A. 개인 상담을 늘려야 한다. No!
- B. 참된 설교는 개인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바른 설교를 하라.”
- C. 같은 설교를 통해 성령님께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영과 진리 예배).
- D. “오늘 설교를 듣고 저의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만나기 전에 이미 해결됨
- E. 개인 상담도 필요하지만 설교가 우선이다. 300명, 1000명을 어떻게 다 만나는가?(시간 절약)

F.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믿어야 한다(처음으로 예배 후 집에 가면서 아내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평생 처음으로 안식을 느꼈다).

G. 사람이 상담을 원할 때: 신자와 불신자

1. 불신자의 경우: 그리스도인 되게 해야 한다. 그 외에는 영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2. 설교를 하면 불신자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이를 고백하게 된다.
3. 개인 사역의 기초 역시 올바른 말씀 선포이다.
4. 개인 상담을 비롯한 다른 모든 행위는 설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기 위해 존재한다.

H. 시대가 변하지 않았느냐?

1. “16, 17세기가 아니고 21세기입니다.”
2. “미국, 영국에서나 가능하지 여기는 한국입니다.”
 - a. 하나님도 인간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은 표면적으로만 변했다(잘 먹고 잘 산다).
 - b.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은 불변한다.
 - c. 사실 지금이 설교하기 가장 좋은 때이다
 - d. 물질은 많아도 인간은 공허하다.
3. 세련된 교육, 좋은 책, 컴퓨터, 스마트폰 시대, TV나 라디오로 하면 안 되는가?
 - a. 이것들은 모두 개인적이다. 사람이 많은 통제권을 갖는다.
 - b.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다(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설교이다.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
 - c.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에 오면 의아해 한다.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
 - d. 살전1:6-10의 중요성, 회중이 모인 것 자체가 설교이며 이들은 즉각 영향력을 미친다.
 - e. 이런 일은 독서나 TV, 스마트폰으로 불가능하다.
 - f. 가장 큰 이유: 교회의 신비성이 없다(마18:20).
 - g. 교회는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모임이라 신비 그 자체가. 교회 모임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이다.
 - g. 강신술사(영매) 이야기: 어떤 신비한 능력 체험, 정결한 능력, 신비한 요소
 - h. 그것은 회중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 독서를 통해서는 불가능
 - i. 군중심리는 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중 속에 들어가면 어떤 심리적 요소가 있고 그것은 설교에 의해 강화된다. 그러므로 설교를 대체할 것은 없다.

IV. 대안은 없다. 설교라야만 한다.

설교와 설교자 ㄱ

설교문과 설교 행위: 존스

이번 장에서도 설교가 교회와 목회자의 주된 임무임을 입증하려 함

지난 2장에서 성경의 증거, 교회사의 증언, 신학 자체가 설교(선포)의 중요성을 이야기함을 제시함
첫째 반대 의견: 시대가 변하였다. “하나님,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

둘째 반대 의견: 책이나 TV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

I. 셋째 반대 의견: 그룹 통의, 대화와 토론이 더 낫지 않느냐?

A.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경험, 1942년 조드 박사와 종교 문제 공개 토론 제의를 받고 거절함

B. 조드 박사는 무신론자로서 상당히 유명한 인사, 토론이 기독교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C. 거절 이유: 공개토론은 오락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 믿음 선포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1. 하나님은 결코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경험(출3:1-6).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한다. 그분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히12:28-29). 따라서 담배를 피우
며 인락의자에 앉아 잡담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논할 수는 없다.

2.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고 엄숙한 문제이다: 이생과 내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사려 깊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접근해야 한다: 익살, 코미디, 재치 있는 말, 시간 제한

a.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음 앞에 놓인 환자, 두 의사가 잡담하듯이 이 사람에 대해 토의하면
어떨까? 이 사람 앞에서 익살을 떨며 코미디를 하면 누구라도 화를 낼 것이다.

3.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므로 논쟁이나 토론을 할 대상이 아니다(고전2:14).

a.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만날 수 있는 중립 지대는 없다.

4. 육에 속한 사람은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한다. 자부심을 없애야 한다(고전1:18-25). 먼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같이 되어야 한다(마18:3).

5. 사람의 회심을 위해 설교를 제외한 다른 방안은 다 거부한다.

6. 오직 하나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을 내가 알려주겠다.”(행17:23)

II. 넷째 반대 의견: 사람들이 들으려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A.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답변: 참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온다.

B. 성경과 교회사가 입증한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들으려 온다.

C.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온다. 설교는 장기적 사역이다.

D.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바르게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III. 설교란 무엇인가?

A.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것은 강단의 책임이다: 불완전한 설교관으로 잘못된 설교를 함.

B. 전쟁이나 다른 외적 요인이 아니다: 풍요, 인터넷, 대중 매체 발달.

C. 강단이 바로 서고 설교가 참 되면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으려 온다.

D.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사람은 왜 설교단에 서 있는가?”

E.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설교단에 선다.”

F.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후5:20).

G. 그는 청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다. 지정의의 모든 영역에. 전 인격에 영향

H. 그러므로 설교는 듣는 이들의 영혼육을 변화시켜서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I.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J. 설교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그래서 설교는 수필이나 시 낭독이 아니다.

IV. 설교란 무엇인가? 에픽테토스의 말(84-85쪽), AD 55-135년, 노예 출신, 스토아학파의 대가(고전 1:22)

“철학자의 강의실은 진찰실이라네. 그곳에 다녀가는 사람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을 느껴야 하지. 그곳을 찾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 어깨가 빠진 사람도 있고 종기가 생긴 사람도 있고 두통을 앓는 사람도 있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칭찬이나 들을 요량으로 당장 듣기 좋은 말만 해 주고 보낸다면, 팔이 위골된 채로, 종기가 있는 채로, 두통이 있는 채로 그냥 보내 버린다면 과연 나를 의사라 할 수 있겠나? ‘선생님의 멋진 도덕적 결론에 찬사를 보냅니다’라는 말이나 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재산을 버리고 집과 부모와 친척을 떠나왔겠는가? 소크라테스나 제논이나 클레안티스가 한 일이 그런 것이었는가?”

- A. 심지어 철학자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 B.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온다: 인생의 갖가지 문제와 어려움
- C. 50명이 앉아 있는데 제대로 설교를 안 하면 50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 D. “당신의 설교를 듣고 자신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 E.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는가?”
- F. 그러므로 설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 G. 그 결과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라고 작심하게 하는 것이다.
- H. “오늘 그 인용문 좋던데. 그 시가 좋아. 웃기는 그 말 참 좋던데” 이것은 설교가 아니다.

V. 설교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설교문(sermon)과 설교 행위(preaching)

- A. “설교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설교자의 됴됨이, 인격, 설교 내용
- B. “가장 뛰어난 설교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은 설교 행위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몸 전체로 설교한다.’
- C. 18세기 조지 윗필드와 대니얼 롤런즈의 비교: 둘 다 훌륭한 설교자, 웅변력, 전달력, 설교 행위 등
- D. 롤런즈에게서는 항상 훌륭한 설교문이 나오는 반면 윗필드에게서는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 E. 빈약한 설교문으로도 훌륭한 설교가 나올 수 있다(예외적인 경우).
- F. 윗필드의 설교 출판 허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이 위에 천둥과 번개를 옮겨놓을 수는 없을 텐데요.”
- G.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문 준비와 설교 행위를 해야 한다.

VI. 설교문은 무엇인가?

- A. 설교문은 내용과 형식이 있다.
- B. 베드로와 요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3:1-6).
- C. 지금 환자는 누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의 인생을 바꿀 그 무언가를.
- D.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 E. 설교자가 해서는 안 될 일
 1. 시사평론(수필, 시, 책, 시사 등 평론)
 2. 윤리 도덕 이야기
 3. 적극적 사고 방식의 기복주의, 한탕주의
 4. 이런 것은 강단에서 할 필요가 없다: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다(은과 금의 범주). 설교자의 책무가 아니다.
 5. 설교자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하지만 그것은 주된 목적이 아니다.

F. 설교자가 해야 할 일

1. “내게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 내가 받은 것, 내게 맡겨진 것
2. 이것이 없으면 설교하면 안 된다.
3.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임무를 수행하는 대사이다.
4.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5. 내 사상이나 내 개념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해야 한다.

VII. 성경 메시지의 종류

- A. 구원 메시지(케리그마): 복음 설교, 구원 설교
- B. 가르침의 메시지(디다케): 성도의 양육(성화와 교육), 엡4:11-13
- C. 구원 메시지의 요약: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행20:17-21; 살전 1:9-10),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행17:23),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알리는 것
- D. 가르침의 메시지의 두 종류: 성화 실천과 교육(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다루는 메시지
- E. 그러므로 설교자는 적어도 신자와 불신자를 향해 세 종류의 설교를 해야 한다: 구원, 성화, 교육

설교와 설교자 ㄴ

설교문의 형식: 존스

성경 메시지는 세 종류: 구원, 성화, 교육 메시지

이 셋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나오는 명제

“설교는 언제나 신학적이어야 하며 신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신학 무시 No!

설교자의 메시지는 항상 모순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틀인 신학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연합 집회: 어떤 이들의 잘못된 주장: 신학 논쟁은 나중에 하고 이번에는 복음만 접합시다. “전도 설교 혹은 복음 설교는 신학이 없다.” No!!!

전도 설교의 내용: 하나님, 사람, 죄, 예수 그리스도, 회개, 믿음, 천국과 지옥 등을 다루므로 실제로 신학이 매우 중요하다.

I. 설교와 신학의 관계

A. 조직신학의 이해(성경의 통합적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성경,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 사람, 죄, 예수 그리스도, 회개, 믿음, 천국과 지옥, 사탄과 천사들, 교회와 이스라엘 등

B. 설교는 항상 조직 신학의 총체적 틀 안에서 나와야 한다. 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등, 히브리서 6장, 10장, “구원받았어도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만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큰 오류이다.

C.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전체 뜻이 세부 사항보다 중요하다.

II. 총체적인 복음을 전해야 한다

A. 복음에는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우주적인 측면이 있다.

B.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엡1:10).

C. 이것은 셋째 유형의 교육형 스타일의 설교에 적합하다: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복음의 광대한 범위와 영역 제시

D. 사도 바울의 서신서: 교리와 실행으로 구성됨. 실행 부분에서도 또 교리가 나옴.

E. 이런 식으로 전도 설교, 성화 설교, 교육 설교를 구분해서 해도 결과는 달리 나올 수 있다.

F. 성화와 교육 설교에서 감화되어 구원을 받는 사례가 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III. 설교문이란 무엇인가?

A. 설교문은 수필이 아니다.

1. 수필은 읽기 위한 것, 가능한 한 반복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나 설교에는 반복이 나와야 한다.

2. 수필은 어떤 발상을 적는 것이다.

3. 수필에는 도전이 들어가면 안 된다. 부담 없이 읽는 글

B. 설교는 강의(성경 공부)와 다르다.

1. 강의는 지식의 전달이 목적이다.

2. 그래서 설교를 성경 공부 식으로 하면 절대로 부흥이 생기지 않는다. 대화식 설교 등 No!

C. 설교문은 가능한 한 강해로 작성한다.

1. 주제 설교: 목사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찾아서 설교하는 것(기억하라, 영광, 은혜)

2. 강해 설교: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설교하는 것, 주제 설교도 가능하면 강해가 되도록 하라.

3. 강해 설교란 성경 구절을 단순히 주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원어, 단어, 단락).
4. 설명이 있는 뒤 거기서 발견되는 특정 교리를 설교 형식으로 바꾸어서 전달해야 한다.
5. 형식을 만드는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몇 가지 요점 정리).

D. 어떤 이들의 주장: 성령님이 임하시는 대로 대언의 설교를 하면 된다.

1. 초대 교회의 설교: 주로 대언적 설교, 설교자가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 하에서 말씀을 선포함
2.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그런 방식일 수밖에 없었다.
3. 그럼에도 베드로의 행 2, 3장 설교와 스테반의 행7장 설교, 바울의 행13장, 17장 설교를 보면 모두 형식이 있다. 모두 그 안에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가 있다.
4. 행7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두 족장, 요셉, 모세, 이 모든 일에서 백성이 항상 반역하고 불순종함,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임,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전함.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54절).
5. 이런 차원의 형식이 존재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6. 그러므로 아무나 일어서서 설교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E. 강해 설교의 특징

1. 성경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2. 고린도전후서 강해: 파당, 결혼, 이혼, 소송, 부활, 주의 만찬, 부활, 헌금 등 주제가 다양함
3. 설교자는 항상 성경에 근거하여 말한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4. 그래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상고해야 한다.
5.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리는 무엇인가?
6. 그것을 21세기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III. 설교문의 구성

A. 본문에서 끌어낸 생각들을 정리해야 한다.

1. 제목, 서론, 본론(몇 개의 대지), 결론
2. 논리적으로 최종 목표인 결론을 향해 논리와 명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 그리고 결론을 맺어야 한다. 이때에 청중들이 각오하고 다짐하게 해야 한다.
4. 설교 요점의 적용: 설교의 중간 중간에 해도 되고 나중에 모아서 해도 된다(질문이나 권면의 형태).
5. 연속 설교를 할 때에도 한 설교는 반드시 하나의 유닛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6. 그래서 한 편의 설교에는 예술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그래서 공을 들여야 한다.
7.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중의 필요를 돕기 위해
8. 그래서 위대한 설교는 대개 위대한 설교문에서 나온다.

IV. 설교문 결론

1. 설교문 준비에 땀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대장장이가 칼이나 도끼를 만들려고 모루 위에 쇠에 올려놓고 망치질을 하듯 수고해야 한다.
3. 논리적으로 물 흐르듯이 설교문이 작성되면 좋은 설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4. 그래서 꾀슬러는 설교를 가리켜 '창조 행위'라고 하였다.
5. 완벽한 설교문을 가지고 가도 설교 시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는 없다.

설교와 설교자 ㄱ

설교 행위: 존스

I. 설교 행위가 말로 진짜 설교이다.

A. 말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들어보아야 알 수 있다. 사랑과 비슷하다.

1.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 전부와 관련이 있다.

- a. '인격을 통과한 진리': 필립스 브룩스, 한 사람의 모든 능력, 심지어 몸까지
- b. 데모스테네스: 웅변의 제1요소는 동작, 제2요소도 동작, 제3요소도 동작

2. 권위와 통제력을 가지고 회중과 예배 순서를 관장해야 한다.

- a. 망설이는 태도 No!
- b. 회중에게 선포해야 한다.
- c. 이것은 결코 자신감이 아니다. 자신감은 설교와 설교자를 망친다(고전2:3).
- d.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진지하게 엄숙하게 선포 행위를 해야 한다.
- e. 회중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회중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교자의 자유

- a. 설교문은 꼼꼼하게 준비하되 설교 행위는 자유롭게 해야 한다.
- b. 준비한 내용에만 얽매이면 안 된다: 설교 행위의 핵심, 읽는 설교 No!
- c. 순간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와 영감에 마음을 열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
- d. 설교문에 기록한 예화나 성경 구절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

4. 설교자는 회중에게서도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

- a.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응을 보고(눈길)
- b. 설교자가 낙심한 상태에서 갔어도 회중의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
- c. 이 점에서 설교자는 원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한다.
- d. 설교문을 세심하게 적는 것과 배치되는 것 같아도 이 점을 중요시해야 한다.

5. 진지해야 한다.

- a. 설교가 가볍고 피상적이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코미디나 쓸데없는 유머 No!)
- b.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회중의 상태에 대해 말한다(엡2:1-3).
- c. 짧은 인생과 영원에 대해 말하므로 진지해야 한다.
- d. 리처드 백스터(참 목자상): "나는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는 듯이 설교했으며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하듯이 설교했다."
- e. 로버트 맥체인: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 강단에 서서 첫마디를 꺼내기 전부터 회중들이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6.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 a. 진지함이 따분함이나 쓸데없는 종교적 엄숙함이 되면 안 된다.
- b. 설교는 따분해서는 안 된다.
- c. 장로교 개혁과 설교자들 중에 지루하고 따분한 목사들이 많다.
- d. 설교자가 지루하고 따분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 성경의 장엄한 메시지를 따분하게 전하면 말이 되는가?

7. 열심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 a. 설교자는 자기의 메시지에 사로잡혀야 한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따분할 수 있나?

b. 존스 목사님의 체험: 잉글랜드의 한 교회 방문, 예레미야 20장 9절 강해, 전체적인 설교 윤곽, 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됨. 그런데 설교자는 냉담하게 형식적으로 빙산에 앉아 설교하고 있다.

c.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행1:8).

d. 설교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나의 경험

8. 뜨거워야 한다.

a. 어떤 때는 울기도 한다(행20:19; 빌3:18). 목사가 매번 울고 노래하는 것 No!

b. 바울과 같이 위대한 지성인이라도 울 때가 있다. 조지 윗필드의 경험

9. 긴박감

a.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딤후4:2)

b. 영혼의 운명을 가르는 일, 매우 긴박한 자세로 해야 한다.

c.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영혼들을 두고 진지하게 긴박하게 설교해야 한다.

10.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a. 설교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고후5:20).

b. 그러려면 설교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파토스'라고 한다.

c. 예수님의 마음(마9:36)

11. 파토스(감정, 열정, 확신)가 있어야 한다.

a.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 파토스를 만들어 낸다.

b. 어떤 사람은 위스필드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것처럼 자기도 해 보고 싶다고 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설교자에게 충만히 부여될 때 나타난다(롬5:5).

c. 진정한 설교에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감동(감정)이 나타난다.

d. 롬9-11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상태와 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는 11:35-36에서 웅장함 감정을 토해 낸다.

e. 이런 것은 코미디로 울리고 웃기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f. 자신이 저주 받은 죄인임을 깨닫고도 아무 감정이 없을까? 하나님의 준엄한 법을 듣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을수 있을까? 복음 설교를 몇 번 들어도 좋다. 구영재 선교사님의 천주교 강의

g. 부흥 집회, 코미디 쇼 등에 의한 감정과 말씀에 의한 파토스의 감정은 다르다.

h.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인을 사로잡는다(지정의).

12. 능력이 있어야 한다.

a. 중요한 내용이라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b. '능력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c.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d. 성령님과 권능을 실증함(고전2:0; 살전1:5)

B. 참된 설교는 설교문과 설교 행위가 결합된 것이다.

1. 설교문과 설교 행위의 차이 다시 설명

a. 설교문 작성 후 설교를 했는데 좋은 현상이 나타났다.

b. 다음 주에 다른 교회에 가서 같은 설교문으로 다른 회중에게 설교했는데 반응이 냉담하다.

c. 그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둘 중 하나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

3.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좋은 설교가 나온다.
4. 스펠전 목사님 교회 성도들의 목사를 위한 기도
5. 우리의 설교에는 열과 빛이 다 있어야 한다.

C. 설교란 무엇인가?

1. 불붙은 논리이다.
2.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
3. 불붙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신학이다.
4. 서로 모순인 것 같지만 아니다.

D. 설교의 목적 재점검

1.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는 것
2. 설교문이 빈약하더라도 설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3. 이것이 설교로 안 되니까 현대 목사들은 드라마나 음악으로 인위적으로 조장한다.

E. 헨리 쏬웰 목사의 고백(p. 152-153), 한 번도 제대로 설교한 적이 없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II.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의 특성

A. 예배 시 설교에서 설교자와 회중이 성령님에 의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설교자에게 있어야 한다.

1. 로고스(Logos):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본문 구절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보며 문맥 안에서 그 안의 단어들의 뜻을 찾아내고 그 단어들이 회중에게 바르게 전달되도록 올바른 해석 방법에 의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로고스 그 자체를 선포한다.
2. 에토스(Ethos): 둘째는 에토스인데 이것은 곧 설교자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설교를 할 때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들을 다룬다는 생각으로 당신의 손과 마음을 마비시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우리가 다 구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그것에 복종하려 하고 그것을 갈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에토스(정신세계)의 일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교도인 에임스(William Ames)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설교가 효력을 발휘하려 할 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꾸밈없이 설교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에토스이다.” 설교자의 에토스가 그가 전하는 로고스를 뒷받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이룰 수 있다.
3. 파토스(Pathos):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열정과 확신이다. 한번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불신자인 흄(David Hume)이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그러자 흄이 대답하였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믿을 때에는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다.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필수적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설교를 기뻐하신다.

B. 그러므로 설교 시 하나님의 기쁨은 로고스(말씀)와 에토스(설교자)와 파토스(설교자의 열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신도 이 셋을 갖추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때에 회중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휴즈(R. Kent Hughes), “Preaching the Word” Commentary 편집자

C. 설교자가 회중과 동일하게 자기도 죄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해야 한다.

설교와 설교자 16

설교자: 존스

설교문과 설교행위가 결합된 것이 설교이다.

I.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는가?

A. 모든 그리스도인이 설교를 하는 것(평신도 설교)은 아니다.

1. 평신도 설교에 대한 고찰
2. 지난 100년 동안 누구라도 설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짐
3. 심지어 여자도 설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섬(딤후전 3장에 따라 목사나 집사 불가)
4. 존스에 의하면 이것은 감리교, 형제교회 등의 비신학적 영향 때문이다(형제교회 등에서는 성령님이 임하는 대로 아무나 일어나 설교함).
5. 존스는 이것을 '비성경적인 설교관'으로 보고 있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

B. 평신도 설교

1.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없는 경우, 우리 교회(미래 교회)
2. 성경은 여가를 이용해 설교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3. D. L. 무디, 찰스 피니 등의 영향
4.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하는 것'(벧전3:15)과 설교는 다르다.
5. 즉 주님을 믿는 이유를 대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다르다.
6. 성경은 교회의 목사(감독 혹은 장로)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 줌(딤후전3:2).

C. 평신도 설교의 문제

1. 소명(calling)의 결여: 설교는 부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가능하면 전 시간을 들여 해야 하는 일이다.
2. 설교는 부업이 아니다.
3. 설교자는 반드시 소명 즉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4. 설교자는 스스로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존경 받는다. 책 읽을 시간이 많다 등등
5. 대언자의 일 즉 설교는 사람이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D.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 정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있어야 한다.
2. 이것이 다른 이들에 의해 확인되거나 강화가 된다.
3. 이러면서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한다.
4. 가르치거나 알려주어야겠다는 열망이 생긴다.

E. 압박감이란 무엇인가?

1. 설교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마음
2. 스펀전의 말: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하라. 목회를 하지 않고도 살만 하다면 목회를 하지 말라."
3. 존스의 경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다고 자신에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버리게 된다.

F. 동시에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놀려야 한다.

1. 고후2:14-16
2. 안 하려고 애를 쓴다.
3.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전2:3).

4. 위대한 설교자일수록 설교하기에 주저하였다(이사야, 예레미야).
5. 압박감과 두려움 없이 설교자로 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II. 교회의 소명 점검

- A. 설교자가 보내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교회가 개입한다.
1. 교회는 딤편3장과 딤편1장에 있는 대로 설교자를 검증해야 한다.
 2. 교회의 일꾼은 행6장에서처럼 교회가 원칙을 가지고 세워야 한다.
 3. 그러나 교회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영국 감리교회의 캠벨 모간 배척
 4. 본인은 소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장애물을 제시하여 판단하고 그의 성품이나 지성이나 언변을 평가해야 한다.
 5. 스펠전의 사례: 어떤 사람의 설교 요청, 성령님은 질서 있게 일하신다.
 6. 한 사람의 야망이 그를 목사로 만들려고 한다. 이를 말리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7. 가장 중요한 요소: 보통 사람 이상의 영성이 있는가?(성령 충만한가? 행6:3).
 8.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성경 지식, 교리, 가정 등
 9. 인격의 문제;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딤편2:6-8; 딤편후2:24).
- B. 이런 것들이 만족된 후에 능력을 보아야 한다.
1. 신학의 이해
 2. 말씀의 이해
 3. 언변의 능력: 설교자는 말하는 사람이다.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설교자가 될 수 없다.
 4. 존스의 경험: 유능한 과학자가 찾아와서 설교자가 되겠다고 함. 그런데 말을 못한다. 반대했지만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됨. 그 후 7년 동안 세 군데 교회를 전전하다가 과학 분야로 돌아감.
 5. 교회의 잘못도 있다: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면 목사가 되라고 목사나 교회가 이야기한다.
 6. 존스의 경험: 한 젊은이가 정신과 의사를 찾음. 그 이유: “너무 혼란스럽다.” 그는 빵 집에서 일하며 좋은 목소리로 교회를 섬겼다. 교회를 방문한 전도자가 목회를 하라고 권면함. 그래서 목사 훈련을 받기 위해 한 대학에 들어간 지 2주 되었다. “도무지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 “정신과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제 제 정신이 들었다.”
- C. 개인과 교회가 한 사람의 소명을 점검할 수 있다.

III.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

- A. 회심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1. 이것이 없으면 설교가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2. 회중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기 문제를 풀려고 한다.
 3. 그러나 설교자는 회중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강단에 서야 한다.
 4. 따라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서 직장 생활, 사업 등을 하는 것이 좋다.
 5.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신학교, 신대원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 B. 지적 훈련의 필요성: 가능하면 대학에서 예술이든 과학이든 일반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추론하고 말하는 것 중요
 2. 국어를 잘해야 한다.
 3. 존스의 경우 신학을 하지 않고 의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따라서 그는 신학대학이나 신대원 다니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 C. 이런 훈련 뒤 성경과 성경 메시지에 대한 특별 훈련이 필요하다. 확고한 조직 신학,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해

D. 원어는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도움이나 가치가 없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원어를 읽고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특권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원어 사전은 불신자들에 의해 저술되었으므로 뜻이 왜곡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리스어 'haplotes'(haplotes)의 번역 용례

	구절	번역 예
1	고후9:11	Bountifulness(풍부함)
2	고후9:13	Liberal(너그러움)
3	고후8:2	Liberality(너그러움)
4	롬12:8, 고후1:12	Simplicity(단순함)
5	엡6:5; 골3:22	Singleness(단일함)

5번 용례: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in singleness of heart)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엡6:5). 4번이 맞다고 주장함

E. 교회사 공부가 중요하다(정수영 목사님의 교회사).

1. 이단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선량하며 양심적인 사람들에게서 이단이 생겨난다. 조직 신학의 부재, 어느 특정 구절로 주요 교리를 만들. 안상홍 증인회, 신천지

2. 부흥의 역사를 알게 된다.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 조지 윗필드, D. L. 무디 등의 전기

F. 설교학: 마지막에 두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설교집, 예화집, 설교 구성법 등은 참조할 수 있지만 언제나 설교자 다음에 두어야 한다.

IV. 결론: 설교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다.

A. 설교자는 태어나지 가르쳐서 되지 않는다.

B. 설교에 관한 책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개선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이 설교자를 만들지는 못한다.

C. 존스는 설교 코칭 등에 대해 반대한다.

D. 그러나 우리는 설교 코칭이 설교자를 만들지는 못해도 설교자의 부족한 여러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E. 특히 이를 위해서는 설교자의 아내가 설교자의 부족한 점을 잘 지적해 주어야 한다.

F. 젊은 설교자는 노련한 설교자의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한다.

G. 나의 경우 Warren Wiersbe의 설교를 듣는다. Sermonaudio.com

H. 주석서의 경우에도 Warren Wiersbe의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 Preaching commentary 등을 참조한다.

I. 좋은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영어의 경우 PC Study Bible, Word Search, 국내에서는 미션의 Deluxe 바이블

V. 최종 결론:

A. 하나님을 향한 사랑

B. 영혼을 향한 사랑

C. 진리에 대한 지식

D. 성령님의 강한 역사

E. 이 외의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설교와 설교자 ㄱ

회중: 존스

지금까지, 설교문과 설교행위, 설교자에 대해 말함. 그러면 설교자와 회중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너무 강단을 강조했으나 지금은 회중석을 강조하고 의식하는 경향(에든버러 교회 여인)

I. 현대인은 이전 사람들과 다르다

A.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변했다.

1. 볼트만의 입장: 복음서의 기적 등은 현대인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많은 현대 신학자들).
2. 보통 사람들은 TV, 영화 등에 익숙해 있어서 설교를 통한 논리적 진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3. 영화, 드라마, 배우나 탤런트, 가수, 유명 인사 초청, 분위기 조성 뒤 잠시 복음 전달
4. 현대인들은 칭의, 성화, 영화 등에 대해 모른다.
5.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thou, thee 대신 you를 써야 한다.
6. 성경도 아주 쉽게 의역으로 번역하고 기도, 설교 등도 모두 쉽고 간단하게 바꾸어야 한다.
7. 지성인은 창조와 성경 역사를 믿지 않으므로 진화를 수용하고 영적인 것들만 이해하게 하라.
8. 현대인은 고등교육을 받았으므로 고전 문학, 현대 예술, 소설 등을 인용해야 한다(인용문 찾기에 혈안, 소설 줄거리 요약 비서).
9. 설교자는 토요일영화극장을 시청하여 현대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줄거리를 이야기해야 한다.
10. 쉬운 성경 등을 읽고 약간 해설한 뒤 질문을 받아 토론하라.
11. 공단 지역에서 목회하려면 6개월 정도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

B. 회중석은 어느 정도까지 강단을 통제해야 하는가?

1. 존스의 옥스퍼드 대학 채플 설교: 학장 부인의 응답 “역사상 최고의 설교, 죄인 취급 설교, 우리는 지성인을 위한 수필 설교는 원치 않는다. 거기서는 얻는 것이 없다.”
2. 노동자 교회에서 성공한 목사가 지식인 교회로 이동한 뒤 사역이 안 됨
3. 존스는 45분 정도 설교한다(가르치는 설교, 논리적인 설교 등). 그래서 갓 회심한 사람, 죄책감에 빠진 사람에게는 안 들려주는 사례가 있다. 열두 살짜리 소녀의 말: “우리는 목사님 설교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사례
4. 존스 교회 성도들의 예: 처음에 와서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서 확실히 알게 됨. 그 결과 성장하면서 예배와 메시지 전부를 충분히 누리게 되었음.
5. 지성, 이해력, 지식, 문화가 달라도 한 설교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6. 현대인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종족이 아니다. 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 왔다.
7. 루터의 말: “설교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쉽고 솔직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박사나 판사가 아니라 하녀들과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어린아이 같은 설교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한 설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학무학자가 다 알아듣게 하라는 것이다.
8. 존스: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 법학도의 말 “자기처럼 많이 배운 사람을 향한 설교가 과연 농부들이나 노동자들에게도 먹히겠는가?” 존스의 답 “옥스퍼드 대학생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흠으로 지어진 평범한 인간, 비참한 죄인, 그러므로 그들의 필요는 동일하다.”
9. 특별 부류를 위해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C. 원래 우리가 다루는 내용 자체가 독특하고 특별하다.

1. 존스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은 없고 단지 그것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thou, thee 등의 익숙하지 않은 고어로 인해 성경을 읽지 못하겠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말한다. “어느 시대 누구라도 성경의 언어를 낯설게 여겼다. 성육신, 성화, 칭의, 삼위일체, 화목 제물을 처음부터 알아들을 사람이 있는가?”
2. 오히려 교인들이 그 특별한 것들을 알기 원하도록 기대하게 해야 한다.
3.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설교자의 몫이다.
4.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다. 설교자가 이해시켜야 한다.
5. 고전2:14

D. 노동자 교회, 연예인 교회 등

1. 사람을 알아야 하므로 노동자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공장에서 6개월은 일해야 한다.
2. 술주정뱅이, 창녀, 깡패 생활 필요
3. 이 주장을 따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회중에게는 설교할 수 없다.
4.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지성인, 비지성인, 전문인, 비전문인, 연예인 예배 등 No!
5. 릭 워렌, 빌 하이בל스 목사의 구도자 예배 No! (원하는 대로 맞추어 준다)
6. 골3:11,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심판 아래 놓여 있다.
7. 의사와 목사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의사는 환자의 사정을 세세히 알아야 한다. 목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 모두가 죄인이며 죄의 증상들이 아니라 공통적인 '죄 병' 자체를 고쳐야 한다.
8. 설교자의 상담; 개개인의 독특한 죄 문제 상담, 그것만 해결되면 만사형통 No!
9. 구원이란 특정한 죄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10. 그러므로 설교자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알 필요가 없다(바리새인, 세리, 판사, 검사, 의사, 박사, 교수, 어른, 아이 모두 동일한 죄인이다).
11. 맥주를 먹고 취하거나 포도주를 먹고 취하거나, 누더기를 입고 죄를 짓거나 실크를 입고...
12. 죄의 본질은 겉의 죄들이 아니라 죄성 그 자체이다.
13.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설명하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경우에 맞게 적용시켜 주신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II. 고전9:19-23은 어떤가?

A. 이것은 회중이 강단을 통제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1. 이것은 설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동 및 처신에 대한 것이다.
2.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것이다.
3.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설교자의 유연성에 대한 것이다.
4. 청교도 청교도 하면서 17세기 사람들 흉내 내지 말라(표현, 말투).
5. 고전 8장의 내용: 우상에게 바친 제물 문제, 유대인 이방인 신자 모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약한 자들이 있었다.
6. 이런 연약한 형제들을 유연하게 대해야 한다(고전8:13; 10:29)는 것이 핵심이다.
7.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설교할 때 유대인 출신들이 강요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8. 베드로 면책(갈2:11-13)
9.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것(행15:)
10. 어떤 유명한 설교자, 청교도 상을 머릿속에 넣고는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11.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예배 형태, 옷차림, 독립침례교회의 전통 등).
12.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게 해서 안 된다.

B. 메시지에 배치되지 않게 해야 한다.

1. 사람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구절 구원 설교 No!
2. 신약약의 모든 구절을 예수님과 연관 No!
3. 우드바인 윌리(원명 스투더트 케네디), 1차 대전 시 군목, 병사들의 우드바인 담배 사용, 병사들처럼 욕을 입에 달고 삼. 전쟁 이후 이것을 설파하러 전국을 돌아다님, 대실패
4. 이런 것은 신약성경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5. 죄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 그들은 자기들과 달랐다.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6. 심지어 헤롯도 침례자 요한을 중히 여겼다.
7.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겠다는 것은 큰 오류: 경배와 찬양
8.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야 한다(히12:28-29).
9. 우리의 메시지는 사람들더러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즉 사람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11.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12.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강조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13. 고전9:15-27의 핵심: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느8:8)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야 한다.”

C. 성령님과 그분의 권능을 잊지 말라.

1. 그분은 모든 부류의 모든 사람에게 죄를 확증시킬 수 있는 분이다.
2. 한 복음, 유일한 복음만 있다.
3.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향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골3:9-11)

설교와 설교자 명

메시지의 성격: 존스

회중석이 강단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I. 그림에도 설교자는 회중석을 평가하여 참작해서 설교해야 한다.

A. 바울의 고린도 회중 평가(고전3:1), 바울의 히브리 회중 평가(히5:12)

1. 교사는 가장 먼저 청중이나 제자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2. 젊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청중을 자기 수준으로 보지 말라.
3. 청교도들의 예, 3시간 설교
4. 런던 교회 여성도들의 예: 연세든 분들, 지성인이 와서 삼위일체 설명, 거의 의미 없음
5. 어린아이에게는 젓, 어른에게는 단단한 음식

II. 강단의 오관

A.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치명적인 실수

1. 존스의 체험: 본인은 수년 동안 교회만 다녔지 성도가 아니었다. 회개, 중생 설교를 못 들음
2. 정식 회원이 되려는 사람들과의 면담: 시골에서 런던으로 옮.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존스의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3.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
4. 존스의 9주간 캐나다 터론토 경험: 그 교회의 유력한 자매, 오전은 성도 대상 성화 설교, 저녁은 불신자 대상 구원 설교, 그러자 저녁에 오겠다고 함. 9주 내내 그리함. 그녀는 실제 성도가 아니었음.
5. 청중 가운데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는 죄인 취급하는 설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이 있다.
6. 존스의 체험: 30년 교인, 한 여인 일반 설교, 편안한 설교만을 원하고 가슴을 찌르는 설교는 거부하다가 떠남
7. 존스의 체험: 한 편지, 복음주의 단체의 지도자, 구원 받은 신자가 복음 설교를 듣고 은혜받은 일이 가능함을 느끼고 감사함.
8.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머리로 이해하나 성령님의 능력에 잡혀 가슴이 변하지 않는다.
9. 그러므로 지적 가르침에만 동의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많은 교인들의 문제
10. 참 신자는 성화 설교든 구원 설교든 언제나 말씀의 능력을 느낀다. 구원 설교를 들어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11. 전도 설교를 들을 때 아무 감동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12. 바른 성도라면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일까?”하는 느낌에 잠시 사로잡힐 수도 있다.
13. 그러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가르침과 양육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분들 조심
14. 웨일스 교회의 부흥 이야기: 처음에는 정식 교인과 일반 교인, 청중으로 나뉘. 1859년 전까지는 정식 교인 심사가 대단히 까다로움, 그런데 부흥의 시기에 성령님의 역사 일어나면서 정식 교인의 자녀는 유아세례를 통해 자동으로 교인이 됨(천주교). 그러면서 복음 설교가 중단됨.
15. 1859년 이후 세대는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함.
16.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험, 청교도들은 주의 만찬과 세례를 중요시하였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규례들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정식

- 교인의 아들딸들이 중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정식 교인이 됨, 에드워즈 No! 사임
17.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모두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 성화와 교육 설교만 하면 머리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
 18. 이것은 설교자와 회중이 둘 다 잘못된 것이므로 적당한 주기로 반드시 복음 설교를 해야 한다.
 19. 또한 모든 성도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권면해야 한다.

III. 목회의 영광

- A. 강의와 달리 예배 중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1. 성도들은 행3:19의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한다.
 2. 성도들은 시84편의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한다.
- B. 설교 시간의 축소 요구
 1. 11시 예배, 12시 폐회, 심지어 모든 절차를 시간 순으로 적은 주보 발행, 설교는 짧게
 2. 연극, 영화, 축구, 야구는 오래하는 것을 좋아 한다.
 3. 설교는 무조건 짧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4. 존 허튼 박사의 예: 설교하러 가서 본문을 펼치자마자 잠 잘 준비하는 사람이 생김
 5. 많은 이들이 예배 의무만 마치고 빨리 가려고 교회에 온다.
 6. 간절히 예배드리고자 하지 않는 사람, 설교를 듣기 원치 않는 사람의 문제: 구원받지 못했거나 교만하다.
 7. 이것은 초대교회(행2:42)와 배치됨. 날마다 모이니 그 결과 교회가 늘어남(2:46-47).
 8. 베드로의 권면(벧전2:2),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죽었든지 병이 났든지 둘 중 하나이다.
 9. 신약성경의 성도들: 말씀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자들
 10. 사도들은 예배에 오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었다. 가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11. 종교 개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루터, 칼빈, 웨슬리, 윌필드 등, 매일 여러 차례 설교했다.
 12.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생긴다.
 13. 성도들을 향한 최소의 권면: 숫자라도 채워라.
 14. 불신자가 교회를 찾았을 때 두 종류의 회중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15. 이 모든 것의 결론: 강단에 큰 권위가 있어야 한다.

IV. 어떻게 권위를 찾을 수 있을까?

- A. 잘못된 방법
 1. 옥스퍼드 운동자들의 예: 설교자에게 특별 가운을 입혀 제사장으로 만들(뉴먼 추기경). 각종 성례, 예배 형식, 영국 성공회에서 천주교로 넘어간 자들, 한국 목사들의 로만 칼러
 2. 비감독교회: 강단의 권위는 학식이다.
 3. 그러나 강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이다. 설교자의 지식과 문화는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만 가치가 있지 그 자체가 권능은 아니다.
 4. 그러므로 설교자의 권능은 성령 충만이다.
- B. 강단의 권위를 부정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이들에 대한 답변
 1. 설교자는 재능이 뛰어나서 강단에 선 것이 아니고 소명(calling) 때문에 선다.
 2. 교회가 소명을 확인해 주고 목회자로 불렀다.
 3. 회중이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도 목사는 그 점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 C. 예배당 공간

1. 좋은 소리 전달을 위한 마이크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2. 인터넷 배포를 위해서는 좋은 영상, 음성 장비가 필요하다.
3. 강단을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중앙에 위치시켜야 한다.
4. 발판 조절대 필요 등,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라.”

설교와 설교자 ㄹ

설교자의 준비: 존스

지금까지는 설교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였다.

이제는 설교자가 매주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I. 설교자는 말 그대로 항상 준비해야 한다.

- A. 항상 책상 앞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영적 차원에서 설교자는 휴일이 없다.
- B. 설교문 준비보다 자신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 C. 설교자는 한 가지 일에 부름 받은 사람이다.
 - 1. 삶의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목사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다. 스스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
 - 3. 존스의 경험: 오전 시간을 확보하라. 설교 준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한다.
 - 4. 오전의 전화는 가능하면 피하라.
 - 5. 하지만 이것 역시 설교자의 취향, 기질, 몸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오후, 밤
 - 6. 즉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를 찾아내서 그 시간에 중요한 일에 몰두해야 한다.
 - 7. 즉 이런 훈련은 각 사람의 몫이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D. 기도

- 1. 존스의 고백: 가장 중요한 줄 알면서도 다루기가 대단히 힘든 주제
- 2.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 같은 것을 저술할 생각도 못함
- 3. 기도에는 공식이 없다(E. M. 바운즈의 기도에 대한 책) No!!
- 4. 존스의 고백: 아침에는 기도하기가 어렵다.
- 5. 그래서 스스로 기도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
- 6. 존스는 성경을 읽는 대신 가슴을 뜨겁게 해줄 경건 서적을 먼저 읽었다.
- 7. 기도는 하루 종일 한다. 꼭 길지 않아도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 8.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는 무조건 기도하라(빌2:12-13).
- 9. 요한 웨슬리,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 기도했다는 말에 주눅들지 말라. 낙타 무릎

E. 성경 읽기

- 1.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 2.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하라.
- 3.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한다(여러 종류의 성경 읽기표).
- 4.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더불어 성경의 한 책, 한 장, 한 부분을 주석 등의 보조 수단을 사용하여 마스터하라.
- 5.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지 말라. 치명적인 함정
- 6. 읽는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 말을 걸어오는 말씀을 정독하고 메모하라.
- 7. 존스의 경우: 생각나는 것을 반드시 메모해 둔다. 잊어버리기 쉽다. 나는 엑셀에 적어 둔다.
- 8. 존스의 경험: 설교를 도와주는 경건 서적들을 읽으라. 그는 청교도 책 권유, 나는 반대,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의 추천 도서들을 읽으라.
- 9.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읽으라. 특히 처음 설교를 하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다. 장로교, 감리교단, Zondervan 출판사 등에서 1년 설교 자료가 나온다. 읽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며 균형을 갖게 해 준다. 존스는 이런 것을 매우 싫어했지만 평범한 목사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딜릭스 바이블 같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10. 설교자의 어려움은 자료를 찾는 데 있지 않고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11.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라.
 - a. 신학서적(성경바로보기, 조직신학 강해 등)
 - b. 교회사(400년 중간사, 유명 인물 전기 등 포함)
 - c. 변증서(창조/진화, 이단 등)
12.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책들만 읽으면 안 된다.
13. 세계사, 국사, 시사평론, 사설, 수필 등도 읽는다.
14. 그러나 설교거리를 찾으려고 읽지 말라. 직업병이 되기 쉽다.
15. 존스의 예: 가정 파티, 수련회 참석한 목사, 큰 유익, “굉장한 설교 자료를 얻었다!”
16. 이렇게 하면 직업 목사가 되기 쉽다.
17. 남 웨일즈에서의 경험: 성경 서점, 목회자들이 같은 책을 사서 같은 설교를 함
18. 설교 카피는 나중에 이야기할 것임: 지금은 그대로 하는 것은 불법임을 말한다.
19. 독서의 목적: 정보를 제공하고 설교자를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20. 존스: 설교자는 수로가 아니라 샘에 가까운 사람이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21. 음악도 도움이 된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다윗, 하박국의 예)

E. 너 자신을 알라

1. 나의 경우: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저런 주제들을 보게 된다. 다른 사람(미국 목사 중 위어스비)의 설교를 듣거나 여러 종류의 설교집을 읽는다. 위어스비 주석을 본다.
2. 무조건 집에 가면 경건 서적을 읽거나 성경을 읽는다. 설교를 듣는다. 아내와 대화한다.
3. 교회의 사정을 생각한다.
4. 그리고 1주일 내내 생각하다가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에 적는다.

F.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바이런 얀, 성서 유니온)

1. 목회는 되는데 설교(설교 전달)가 안 된다.
2. 고민하다가 설교학 박사 학위 입학
3. 명료함(존 맥아더), 단순함(R. C. 스프로울), 열정(존 파이퍼)
4. 특정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5. 설교자는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로 설교해야 한다.

설교와 설교자 10

설교문의 준비: 존스

지난 장은 설교자의 준비, 이번 장은 설교문의 준비

“왜 심방은 다루지 않는가?”

“강단 기도, 공중 기도는 다루지 않는가?”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I. 어떤 유형의 설교를 할 것인가? 구원, 성화, 교육 설교

- A. 설교문의 준비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 B. 존스는 주제 설교를 매우 싫어한다. 사람이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찾기 때문에
- C. 그러나 나는 주제 설교도 필요한 때가 많다고 믿는다. 다만 휴가 때 50편을 준비해 둔다는 등의 허풍을 떨지 말라.
- D. 교리 설교는 가능한 한 하지 말라. 대예배의 회중에게는 부적합
- E. 따로 교리를 시리즈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라.
- F. 교리는 설교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와 해석의 정확성을 지켜 주는 것이다.
- G. 그래서 성경 공부 식 설교로는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대단히 어렵다.

II. 여기저기의 본문을 취해 설교를 할 것인가? 연속 설교를 할 것인가?

- A. 청교도들은 연속 설교를 많이 하였다.
- B. 스펀전은 연속 설교를 선호하지 않았다.
- C. 이 문제 역시 고정된 법칙이 없다.
- D. 성령님의 자유를 인정하라.
- E. 연속 설교를 하다가도 중대한 일이 있으면 설교를 바꾸어야 한다(지진, 911사태, 사망, 결혼, 병자 등).
- F. 절기를 지키는 것도 고려하면 좋다(부활 주일, 크리스마스, 추수 감사, 신년, 송구영신 등).
- G. “절기를 지키면 비성경적이다.”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 H. 우리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므로 사람들의 상태에 맞게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 I. 사람들을 얻는 지혜로운 설교자(잠11:30)
- J. 존스의 경험: 신년 첫 주일 어느 교회 방문, 새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음
- K. 특히 재난은 설교의 기회이다. 인생을 되돌아보게 함. 인생무상, 인간의 유한성
- L. 이때에 사람은 마음이 연해진다.
- M. 나의 경우: 연속 설교 계획, 예레미야 누가복음, 사도 바울, 모세, 다윗, 성경의 인물
- N. 오후에는 히브리서, 고린도전서후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등 연속 강해
- O. 오전 설교와 오후의 성경 강해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다,
- P. 그러므로 각자 자기 교회에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개발하라.
- Q. 존스의 경험: 설교가 설교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경우, 별로 준비할 것이 없이 쏟아져 나온다.

III. 설교문을 준비하는 방법

- A. 한 책을 집중적으로 연구
- B. 한 책의 특정 부분 연구(산상 수훈)
- C. 언제나 강해를 해야 한다. 이 말은 본문이 말하는 바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 D. 연속 설교의 길이: 몇 번으로 할 것인가? 설교자의 개성, 성숙도에 따라 달라진다.
- E. 인생 경험, 능력이 없는 초년의 설교자가 동일 주제를 1년 내내 하면 지루해진다.
- F. 19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에베소서 연속 강해, 여러 신자를 잃음, 너무 깊고 길었다.
- G. 그러므로 성도들을 항상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한다.

H. “성도들은 좋은 싫든 들어야지요.” No!

I. 설교자의 임무는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이다.

J. 그러므로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필요에 맞게 설교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K. 연속 설교의 경우 가능하면 5분 정도를 할애하여 지난 시간 설교를 요약해 주면 좋다.

L. 그러나 요약이 너무 길면 청중을 잃는다.

IV. 설교 유형을 정한 뒤 할 일

A. 본문의 의미를 다루어야 한다: 절대적인 법칙

B. ‘십자가의 자리를 동산으로 바꾸라’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요 19:41)

1. 여기에는 바꾸라는 이야기가 없다.

2. 시련을 아름다운 정신으로 받아들여라. 바꾸라. 감동적인 예화,

3. 영해 설교의 대다수

C.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 요르단 강은 시리아의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에 비해 볼품이 없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삶에서 중요치 않은 것들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요르단 강에 대해 설교함. 이것은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해석, 요점: 누구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아야 한다.

D. ‘나의 복음’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딤후2:8). 설교자는 전통주의, 정통주의, 조직신학 등을 비판하더니 결국 “자기 체험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E. 언제나 정확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F. 그러려면 본문과 대화를 해야 한다: 나는 본문을 여러 차례 읽는다. “왜,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서, 목적은?”

G. 훌륭한 설교를 만들려고 본문을 비트는 것보다는 훌륭한 설교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H. 특정 본문의 메시지와 핵심,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최종 확인 필요

I. 여기에 주석, 다른 사람의 설교 등이 필요하다.

1. 안수 복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개역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수 복음은 곧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세례 요한의 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원래 글에 세례라고 되어 있기에 일단 세례라고 썼지만 세례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의 책 <죄 사함 거둬냄의 비밀 1, 영원한 속죄 편>에서 박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 안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 안수가 전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이 대표해서 예수님께 넘기는 그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니까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1권 218쪽).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안수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겨졌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

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마11:11)

세레 요한은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가장 큰 자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어른이며 대표자란 의미입니다((기쁜소식지 2001년 8월지. 김성훈)

여러분 모두 여자가 낳았지요. 여자도 여자가 낳았고, 남자도 여자가 낳았어요. 온 세상은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레 요한은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졌습니다. 세레 요한은 모든 인간 중에 제일 큰 자이고, 제사장 사가라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레 요한은 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레 요한을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운 이유는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넘겨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레 요한이 해야 할 일과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레 요한 이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복 받는 거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 두 분이 잘 돼야 저나 여러분이 잘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요한이 궁금해 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아,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세레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된 그 예수님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세레 요한이 깨달았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서는 너는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세레라는 말은 안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야, 세레 요한아, 너 나한테 안수해.” 하니까 세레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안수를 합니까? 내가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세레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네가 내게 안수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에 세레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레 요한이 이를 전에 예수님에게 넘겨준 죄는 세상 죄입니다. 즉 이를 전에 세레 요한의 안수를 통해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세레 요한은 온 인류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레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세레 요한의 죄만 넘어갔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 a. 침례자 요한이 인류의 대표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 b. 침례자 요한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에게 안수를 주었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 c. 그 안수에 의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 d. 더욱이 예수님은 머리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안수했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 e. 침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 이방인들이 아니라 -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요1:31).

- f. 세상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심지어 그분 자신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 g. 침례자 요한의 안수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안수 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창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개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데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 h. 침례자 요한이 안수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었다는 것 역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회개의 침례를 승인하신 것입니다.
2.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튿날 떠날 때에 이 테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눅10:35)
3. 다말 사건(창38장),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간음 죄, 메시아 출생을 예견하고 믿음으로 지은 죄
4. 동방의 독수리,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사46:11)
- a.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많은 교회: 한국, 박무수: 자기
 - b. 영어 KJV, 굶주린 새, 개역개정 ‘사나운 날짐승’

설교와 설교자 11

설교문의 형태: 존스

메시지와 핵심을 찾은 이후 실제 상황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I. 도입부

- A. 원래 수신자들의 상황, 거기서 보여 주는 원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 B. 이를 위해서는 성경의 병행 구절들을 가지고 입증해야 한다(롬4:1-3; 창15:6, 관주의 필요성).
다만 성경을 성경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십 개의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 C. 이단들은 한 가지 구절을 가지고 극단으로 몰고 간다.
- D. 병행 구절을 통해 설교자가 말씀의 균형을 보여 주어야 한다.
- E. 시대는 달라도 원리는 같음을 보여 주고 그 원리를 현 시대에 적용하게 해야 한다.
- F. 반대로 먼저 오늘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원리를 제시해도 된다.
- G. 언제나 성경이 모든 시대에 적합한 말씀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 H. 그러면서도 늘 자유롭게, 변화에 적응하는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II. 명제나 대지로 나누는 일

- A. 가짓수에 얽매이지 말라(3대지, 4대지 등).
- B. 존스의 경험: 웨일즈 장로교의 특징, 서론과 3대지 설교
- C. 그러나 웨일즈 장로교의 대니얼 롤런즈는 10대지 설교를 했어도 유명하였다.
- D. 대지를 나눌 때는 그것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E. 알렉산더 매클러렌: 대지를 나누는 황금 망치의 소유자, 우리는 No!
- F. 본문에서 대지를 나누는 것만 기억하라.
- G.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민22:21), 주제와 줄거리 이야기 한 뒤
 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쁜 성품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특징”
 2. 안장은 옛 풍습이다: “옛 풍습인 안장 지우기”
 3.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고찰”
- H. 대지를 너무나 세련되게 깔끔하게 나누려고 애를 쓰지 말라: 직업주의
- I. 두운법 대지: P(power, people, priest) 등 모두 P로 시작
- J. 대지를 나누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서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라.
- K. 대지 나누기가 잘 안 되면 잠시 거기서 벗어나라.
 1. 프랑스 대통령, 총리를 지낸 푸앵카레 이야기, 수확자, 문제를 놓고 씨름함, 해변으로 휴가, 다시 파리로 오려고 버스 타러 감. 읍내에 늦게 도착, 둘째 버스에 겨우 올라탔. 바로 그 순간 문제 해결
- L. 잘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동만 일으킨다.
- M. 존스의 경험: 설교 대지 나누기가 어려워 오전 내내 고민, 점심 식사 후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모든 게 정리 됨.
- N. 설교를 준비할 때 대지 나누기 등이 정리가 안 되면 미루어 두고 다른 주제로 설교하라.
- O. “스스로 좋은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망치지 말라.”
- P. 대지를 한 번에 다 소개하는 문제: 청교도들과 스피치전 모두 이렇게 함(파워포인트 발표처럼).
- R. 그러나 존스는 그렇게 하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반대
- S. 마지막으로 주석 등을 통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맞는지 다시 확인

III. 어떻게 작성하는가?

- A. 종이에 기록 혹은 마음속으로 준비: 사람에게 따라 다르다.

B. 존스는 기록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나의 경우 워드프로세서에 적고 고친다.

C. 완벽한 권고를 쓰는가? 요약만 하는가?

1. 스펀전: 요약, 차머스 박사: 완벽한 설교문 준비, 스코틀랜드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음
2. 조나단 에드워즈: 초기에는 완벽한 설교문, 후기에는 요약문만 작성, 자신의 방법을 바꿈
3. 여기에도 자유가 있어야 한다.
4. 존스의 경험: 처음 10년, 1주일마다 원고 작성 1편, 요약 2편
5. 전도 설교는 원고 작성, 교육 및 성화 설교는 요약: 불신자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야 한다.
6. 후기로 갈수록 원고 작성은 안 하게 되었다.

D. 뼈대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살을 입혀야 한다. 뼈를 사러 시장에 오는 사람은 없다.

E. 이것이 바로 즉석 설교의 위험이다.

IV. 살을 붙이려 할 때의 위험

A. 문체를 너무 꾸미거나 문학적 요소를 가미하려 하지 말라.

B. 17세기 초의 성공회 설교: 완벽한 설교문, 인용, 문학적 측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함. 심미적 만족감을 주는 데 그침

C. 청교도들은 이에 반발함

1. 토마스 굿윈: 뛰어난 연설가이자 웅변가에게 매료가 됨. 그를 표준으로 삼음.
2. 설교 요청을 수락함
3. 화려한 문장과 수사적 기법으로 엄청나게 준비를 하였으나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경고: 남녀노소, 유학무학, 빈부귀천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설교라야 한다. 화려한 문장들 모두 삭제
4. 진리를 전하려는 마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마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D. 3주에 걸쳐 설교 한 편을 작성하는 극단을 피하라.

E.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리 했겠는가? 고전2:1, 4 확인

V. 인용의 문제: 배운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인용하려 함

A. 현 시대의 특징: 서적을 내면 각주를 많이 달아야 학자로 평가받는다.

B. 설교에서 인용의 목적은 자기의 학식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

C. 한 신학교 학장의 예: 설교 부탁, 2달 동안 '옥스퍼드종교시집'에서 인용문 찾기, 제자까지 동원

D. 예술적 수완은 기교로 전락한다. 매춘 행위가 된다.

E. 진정한 예술가의 작품의 특징: 필연성,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용을 하라.

F. 존스는 아예 '인용문 모음집' 자체를 부정함.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있기도 함.

G. 인용문은 자신의 말을 완벽하게 표현해 줄 때만 사용한다.

H. 학식 높은 설교자의 설교: "언더힐이 상기시켰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VI. 설교의 핵심 요약

A. 설교란 설교자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

B. 회중은 인용문이 아니라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다.

C. 설교자의 인격을 통과한 진리를 듣고자 한다.

D. "유식하네"라는 설교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어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E. "누가 말했듯이"라는 말이 많은 설교에는 능력이 없다.

F. 너무 상세하게 추론하지 말라. 말을 따라 잡기가 어려워서 전달이 안 된다.

G. 준비하되 너무 하지는 말라. 원고도 작성하되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라.

H. 설교자는 모두 부류의 사람에게 설교한다는 인식한 채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하라,

I. 즉 설교자는 유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중을 돕는 사람이다.

설교와 설교자 12

예증, 웅변, 유머: 존스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갑자기 즉석 설교를 하게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대지 등이 생각나지 않아 고생을 한다. 그러므로 골격뿐만 아니라 소항목들을 전부 기록하는 것이 좋다.

I. 충분히 자세히 준비하기

A. 남 웨일스의 한 설교자 이야기

1. 1904-1905년의 남 웨일스 부흥
2. 부흥의 시기에는 유창하게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3. 부흥이 잦아들면서 일상으로 오니 설교 준비가 문제가 됨.
4. 심지어 설교 준비를 죄라고 생각하고 영적,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음.
5.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시81:10)
6. 교회는 텅 비게 되고 그는 능력이 출중한데도 비극적인 목사로 끝나고 맘.

B. 하고 싶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준비하라.

C. 어떤 분은 서론과 결론은 완벽하게 작성하고 중간은 요약 식으로 정리한다. 과도기 방법

D. 서론만큼은 확실히 적는 사람도 있다. 처음에 말이 막히면 곤란하므로

II. 설교 전달 시 문제점들

A. 설교문을 보면서 쪽 읽어나가는 것: No!(조나단 에드워즈)

1. 설교자는 회중을 바라보면서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2. 설교는 정의상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3. 회중 대신 천장이나 예배실 창문을 보지 말라.

B. 설교문을 기계처럼 암기해서 발표하지 말라.

1. 암기해서 설교하면 회중과 진정으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2. 윈스턴 처칠의 예: 그는 수사적인 연설가, 모든 것을 써서 암기한 뒤 연설, 반대자들이 소동을 피워 기억을 못하게 하면 허둥댐
3. 이런 차원에서 설교자는 웅변가가 되어 자유롭게 해야 한다.

C. 설교문을 완벽히 작성한 뒤 요점으로 만드는 것: 좋은 방법이다.

D.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혼의 자유, 성령님의 간섭에 열려 있는 자세

E. 문장이 조금 거칠거나 완벽하지 못한 문체를 구사해도 회중과는 좋은 교제가 된다: D. L. 무디

F. 학자들은 바울의 문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그의 말이 형편없다는 것은 그가 수사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님의 간섭이 있다.

G.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얻기 위해 충분히 준비한 뒤 그분께 내어맡기라.

H. 너무 낙심하지 말라: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완벽한 원고가 없이는 서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원고를 믿지 말고 성령님을 믿으라.

III. 예증과 영해의 차이 인식

A. 영해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1.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눅10:35)
2. 동방의 독수리,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사46:11)

- a.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많은 교회: 한국, 박무수: 자기
- b. 영어 KJV, 굿주린 새, 개역개정 '사나운 날짐승'
- 3. 존스의 부흥에 대한 설교: 창26:18,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이야기
- 4. 존스는 어려운 시대, 영적 고갈의 시대에는 새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사도행전과 교회 부흥의 시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증하기 위해 이 성경 말씀 사용.
- 5. 이것이 영해가 아닌 것은 그가 우물, 파는 것 등에 어떤 영적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B. 세상의 인용거리보다는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이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
- C. 존스는 '설교 예증의 기술' 등의 책을 혐오하였다. 설교에는 기술이 끼어들면 안 되므로.
- D. 또 예증 거리를 찾는 대로 모아두는 일도 반대함. 하지만 극단성을 펼 필요는 없다.
- E. 예증만을 듣고 그것만을 기억하는 회중도 있다(럭크맨의 휴거 이야기).
- F. 심한 경우 예증 거리를 정해 놓고 설교 구절을 찾는 경우도 있다.
- G. 예증의 목적: 진리를 잘 설명하고 드러내는 것
- H. 사람들은 예증 특히 목사 가족의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성생활도 이야기한다.
- I. 설교자는 진리 자체만을 설교해야 하며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수단이다.
- J. 예증을 많이 사용하면 설교가 무력해진다. 긴장을 잃는다.
- K. "이런 일이 생각나네요", "이런 일이 있네요", 핵심이 자꾸 끊어진다. 연예인 간증처럼 된다.
- L. ooo 목사의 코미디 설교: 위대하고 장중한 진리를 전한다는 인상을 못 준다.
- M. 예화나 예증은 분명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과학적인 사실을 진술할 때

IV. 상상력의 위치

- A. 지금 사람들은 너무 과학적이 돼서 상상력을 무시한다.
- B. 상상력도 지나치지만 않으면 무시할 수 없는 도구요, 수단이다.
- C. 잘못 사용하면 진리에 악영향을 미친다.
- D. 조지 윗필드, 상상력의 대가, 대부분의 뛰어난 설교자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다.
 - 1. 절벽을 걷는 소경과 개와 지팡이, 죄인이 최후의 심판과 지옥을 향해 다가가는 것 표현, 체스터필드 경, "원 세상에! 저러다가는 소경이 죽겠어"
 - 2. 웨일스의 로버트 로버츠, 바닷가에 있던 몇 사람이 모랫길을 따라 걸어감, 바위에서 잠도 자고 책도 읽음, 썰물이 되어 물이 나감. 밀물이 들어오는데 알아차리지 못함. 그러다가 결국 위험을 알아차림. 얼른 해변으로 피하라고 소리를 지름, 그러자 회중이 예배당 밖으로 뛰어나감.
 - 3. 찰스 피니 역시 강력한 개성과 상상력의 소유자, 구원 초청
- E. 이런 사람들의 예: 사람들이 감화 받는 것은 설교자의 상상력, 이것은 영화나 연극으로도 가능함
- F. 회중은 상상력이 아니라 진리에 감동을 받아야 한다.
- G. 탕자의 이야기: "돈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돼지 음식마저 떨어지자 탕자뿐만 아니라 돼지들도 쓰러져서 탕자의 두 다리를 우적우적 씹기 시작하였습니다."
- H. 이런 예를 통해 우리는 진리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려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V. 웅변 혹은 능변

- A. 웅변이 너무 심하면 자만심으로 연결된다.
- B. 말을 잘하려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 C. 진리에 사로잡히면 자연히 좋은 웅변가가 될 수 있다.
- D.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다'(고후10:10): 그리스 사람들처럼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음

E. 즉 바울의 말은 꾸며내거나 짜 맞춘 것이 아니라 속에서 터져 나온 것

VI. 유머

- A. 유머 역시 타고난 품성과 관계가 있다.
- B. 스펠전은 유머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였다. 한 부인의 이야기
- C. 반면에 윗필드는 유머가 없는 사람, 진지한 사람
- D. 유머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만 사용하라. 코미디언 흉내 No!
- E. 이런 모든 것은 설교의 보조 수단이므로 항상 조심하라.

VII. 설교의 길이

- A. 설교자와 회중에게 달렸다.
- B. 10분 설교는 말이 안 된다.
- C. 청교도 형식이 부활되면서 한 시간 이상 길게 하는 것이 살아나고 있다.
- D. 설교자는 진리와 메시지에 따라 시간의 길이를 조정해야 한다.
- E. 나는 45분 설교;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며 앞으로는 40분으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F. 존스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 것을 촉구한다.
- F. 그러나 현대인에게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G.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모두가 서야 할 것을 생각하며 이 모든 일을 잘 조절해야 함.

설교와 설교자 13

피해야 할 것들: 존스

지금까지 설교문과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일을 살펴봄

I. 설교 주제를 알려주는 문제: 존스는 반대

- A.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강해를 들어야 한다.
 - 1. 성경의 진리의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나와야 한다.
 - 2. 이것만이 예배에 참석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 3. 특정한 주제나 질문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 4. 19세기 이전에는 이런 관행이 없었다.
 - 5.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강해를 듣기 위해 모였다.
 - 6.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됨
 - 7. “나도 배웠으니 설교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해 달라.”
 - 8. 그러면서 정서적인 요소는 무시하고 주제에만 관심을 가짐.
- B. 잘못하면 주제와 성경 본문이 서로 유리될 수 있다.
 - 1. 즉 주제를 살리기 위해 문맥과 상관없이 본문을 다루기 쉽다.
- C. 목회적 차원의 반대: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
 - 1.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
 - 2. 그러나 사실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설교를 하는 이유
 - 3. 총체적인 강해를 함으로써 회중이 몰랐던 것들도 알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무이다.
- B. 사람은 균형을 잃기 쉽다.
 - 1. 어떤 사람은 예언, 재림, 구원 등에만 관심이 있다.
 - 2. 캠벨 몰간의 말 “사람을 구름 떼처럼 모으려면 예언/재림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광고하게나.”
- C. 설교 주제를 알려주고 성가대를 만들며 어린이 설교를 하는 관습은 19세기에 시작됨
 - 1. 이것은 지성주의의 산물
- D. 어떤 것이 관행이 되려면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 관습이 생겼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II. TV나 라디오 설교에 대하여: 존스는 반대

- A. 한두 번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스는 TV나 라디오 설교 거부
 - 1. TV나 라디오 설교를 통해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 2. 있다. 하지만 결과에 논거를 두면 안 된다.
- B. 반대 이유: 예배가 제약을 받는다.
 - 1. 방송국 등에서는 모든 시간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성령님의 자유를 방해한다.
 - 2. 설교가 길거나 짧은 것은 설교자의 자유
 - 3. BBC 종교국장: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몇 곡의 찬송가와 기도 등을 넣어야 하고 설교는 몇 분 안에 마쳐야 한다.
 - 4. 존스의 경험: 미국 방문, 오전 9시 반, 11시 예배, 1,400명, 1,200명, 저녁 예배는 라디오 방송, 400명, 7시 45분에 시작, 녹색 불, 빨간 불, 8시 55분에 끝내야 하는데 8시 35분이 되었어도 본문을 읽지 못함. 20분 남음. 어떻게 할까? 8시 55분에 빨간 불이 들어왔으나 무시하고 9시 25분에 끝냄. 설교 후 다른 지방에 가면서 3명의 부목사들에게 미안하다고 함. 일주일 있다가 오니 사람들의 불평 “왜 설교 시간이 그리 짧으냐? 찬송은 그만두고 설교를

듣게 하라 등등”, 그 결과 다음 주일에는 45분 설교

C. 매체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 나쁜 영향을 끼친다.

1.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

D. 인터넷 시대의 우리는 어떤가?

1. 우리는 방송 시간에 매여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의 인터넷 매체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어쩌면 진리를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2. 다만 인터넷 사역으로 인해 교회로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3. 인터넷 교회, TV 교회 No!

E. 존스의 포인트

1. 우리의 설교를 통해 예배드리러 오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2.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 날마다 모임, 집에서도 모임, 순전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임

III. 설교자가 피해야 할 것들

A. 직업주의

1. 존스는 한때 의사였고 의사로서의 직업주의를 잘 알고 있음

2. 그래서 목회에서 직업주의는 의사의 경우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함

3. 일주일의 행사 중 하나로 설교하는 것은 큰 문제

4. 이렇게 되면 강단에서 하는 모든 일이 형식적으로 변한다.

5. 그러다 보니 목사의 머리부터 옷치장 등이 너무 요란하다.

6. 이런 사람은 늘 자신에게 집중하며 기교를 찾으려 하고 기교를 부린다.

7.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흉내를 내게 되고 아이디어만을 찾으려 다닌다.

8. 배우들의 메소드 기법, 모두 동일한 연기

B. 자기 지식 자랑

1. 독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C. 자신의 준비에만 의지하는 것

1. 설교문을 작성하고는 “이제 다 끝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준비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2. 이 문제는 중요하므로 나중에 다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

D. 설교자의 천부적 재능이나 특징을 조심하라

1. 즉 장점을 조심하라.

2.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장점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4. 특색을 갖추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5. 압살롬의 머리털, 그의 큰 자랑거리, 그러나 결국 그의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함(삼하18)

E. 모든 것 요약: 설교자의 가장 큰 적은 자만심이다.

1. 설교자는 단에 서 있고 모든 사람이 쳐다본다.

2. 교회의 지도자

3. 그러므로 항상 자만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존스의 경험: 주일 밤에 위대한 성도들의 전기나 일기를 읽으라.

5. 데이비드 브레이드너의 전기, 특히 설교를 잘했다고 자신을 평가하는 날 밤에

6. 그런 책을 읽고도 부끄러움이 들지 않으면 직업적인 목사이다.

IV. 기타 사항

- A. 강단으로 뛰어나가거나 강단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농담 몇 마디를 하지 말라. “와 주셔서 감사하다.” No!, 우리를 보러 오는 게 아니다. 예배는 개인 집 초대와 다르다.
- B. 주의 만찬의 빵과 주스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No!
- C. 남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
- D. 자신을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진리의 영광과 위대함에 집중하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인디언 선교에 짧은 생애를 바친 미국 식민지 시대의 선교사이다.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의 저자는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이다.

개인적인 일기를 브레이너드가 임종 직전에 편집하고, 에드워즈가 일부 자료를 첨가해서 출판
25세에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에 헌신하여 29세의 짧은 생애를 불꽃처럼 살다간 헌신의 삶
폐결핵 3기로 조나단 에드워드 집에서 죽어간 브레이너드...

그가 얼어붙은 눈 속에서 붉은 피를 토해내며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가끔은 우울증 같은 시련에 시달리기도 한 그가 한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칠고, 위험한
숲속 길을 고통을 참아가며 말을 타고 달리는 글을 읽으면, 현재의 우리의 삶은 너무 안일에 젖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는 인디언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말을 타고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게 말씀과 찬송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통역을 도와주던
인디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로 추장과 인디언들이 그의 설교에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은혜가 있었다.

그는 인디언 선교를 하느라 하늘을 천장삼고, 짚 무더기를 덮고 자면서도 기도를 중단한 적이 없다.

어떤 때는 결핵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각혈 중에도 기도 생활을 그치지 않았다.
때로는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으며 온 밤을 숲속에 누워있으므로 굶주린
늑대들이 침을 흘려야 할 때도 있었다.

짧은 기간 동안 오직 무릎으로 사역했던 기도 생활에 도전을 받는다. 실로 브레이너드는 경건의 사람이
요, 무릎의 성자였다.

그는 평생 일기를 썼다.

“나는 말을 타고 황무지에 있는 커우나우믹에 갔다. 내가 인디언 틈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 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다. 내 영혼은 진력이 나있었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았다.”(1743. 04. 07).

“나는 매우 외로운 황무지에 살고 있다. 영어를 말하며 교제를 나눌 사람은 나의 인디언 통역자 단
한 사람뿐이다.”(1743. 5월)

“나는 인간적인 처지로 볼 때 외롭게 살고 있다. 내 식사의 대부분은 옥수수나 옥수수 죽이다. 내
사역은 어렵고 매우 힘들다. 나를 온전히 위로하여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1743. 05. 18).

“죽음이여 오게나, 자네의 끈에 입 맞추리니. 죽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 겁날 것 조금도 없어, 영원한
곳으로 가는 길일뿐.”(1743. 08. 23).

“작년에는 영광의 세계를 사모하여 이 세상을 속히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든
관심은 이방인들의 회심뿐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살기 원한다.”(1744. 07. 06).

“오늘은 실로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었다. 그의 말에 인디언들이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흐느끼며 신음하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은혜의 소나기’는 1년 동안 계속 되었다.”(1745년)

그는 은혜의 사역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기를 “자기의 힘이 한계에 도달해서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깨어져 버렸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말을 타고 선교하기 위해서 4,828km를 여행하였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향기와 사도 바울처럼 제물로 드러진 생애
속에서 빛나는 기도 생활은 폭풍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빛과도 같다.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 품으로 간 브레이너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물론이거니와 존 웨슬리, 윌리엄 케리, 헨리 마틴, 짐 엘리엇의
마음에 전환점을 끼치는 계기를 주었고, 복음 사역의 꽃으로 타오르게 만들었다.

설교와 설교자 14

결단의 요청: 존스

13장 마지막 부분 이어서

V. 논박에 대하여

- A. 논박은 설교에서 중요한 요소
- B. 그러나 논박 일변도로 가면 회중과 설교자에게 해롭다.
- C. 어떤 이론이나 인물에 대한 논박을 들으려고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 D. 설교자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
- E. 이렇게 논박으로 인해서 선량한 설교자들이 불행하게 무너진다.
- F. 존스의 경험: 논박으로 유명한 목사와 하루를 보냄,
 - 1. “조셉 파카의 책을 읽었는가?” “안 읽었다.” “나는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기 전에 읽는다. 그가 현대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난도질하는 것을 보면 신이 난다.” “그런데 그리해서 파커가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 2. 존스는 그분이 개신교의 자유주의나 카톨릭의 오류 등을 공격하는 데 열심을 내는 일이 사실은 그의 사역을 망치고 있음을 보여 줌.
 - 3. 그의 논거: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책망하지 않았는가?
 - 4. 맞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책망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선포하라.”
 - 5. 그의 논거: 악성 종양 환자, 외과 의사라면 잘라내야 하지 않겠나?
 - 6. 존스의 답: 외과 의사는 항상 수술적 관점에서만 환자를 본다. 그러나 자르기 전에 내과 의사를 먼저 만나 그의 조언도 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도려낼 수는 없다.
 - 7. 그의 논거: 논박하겠다고 광고하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 8. 존스의 말: 개가 싸울 때는 늘 사람들이 몰려든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데 찾아간다. 논박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Peter Ruckman
 - 9. 그는 결국 고립된 상태에서 삶을 마감했고 그의 교회는 교세가 크게 위축됨.
- G. 공격적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은 대개 육체의 일을 추구하며 육체를 즐긴다.
- H. 설교자는 진리를 설교하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이다.
- I. 또 너무 논박이 없이 호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안 된다.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 K. 균형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 1.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의 균형(빌1:7), 확증함에 더 힘을 써라.

VI. 설교 원고에 대하여

- A. 너무 지적인 원고를 쓰지 말라.
- B. 존스의 경험: 웨일스에서는 두 목사가 함께 설교하는 때가 있었음. 존스가 목사가 된 첫 해에 자기보다 60세가 많은 목사와 함께 설교하게 됨. 오전 노 목사님, 오후 존스, 저녁에는 두 사람, 존스의 오후 설교를 듣고 난 뒤 노 목사의 지적 “지적으로 너무 과한 설교를 했다. 한 가지 규칙, 회중 가운데는 지적인 사람이 열두 명 중 한 사람 정도.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에 넘치는 지적 설교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는 저녁에 시범을 보여 줌. 그 노 목사는 주석도 여러 권 쓴 매우 지적인 사람, 그럼에도 설교는 쉽게 함.
- C. 젊은 설교자는 특히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다: 신학교의 지적 수업/토론 경험
- D.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토론이나 지적 수업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 E. 이 말은 결코 지성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너무 메마른 설교를 하지 말 것
- F. 너무 감성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 본문을 읽고 감동적인 예화나 이야기보따리로 감정 자극
- G. 권면 위주의 설교 반대: 권면도 설교 본문을 강해하다가 나와야지 처음부터 책망과 권면 No!
- H. 또 권면은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문제,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을 끝, No!
- I. 설교에는 권면과 도전도 들어가야 한다.

여기부터 14장임 -----

I. 교회 음악에서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 A. 목소리나 재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인품)이 더 중요하다.
- B.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
- C. 노래나 음악을 들으러 오면 안 된다.
- D. 록 음악, 힙합 음악 등은 안 됨, 인위적인 분위기 조성 No!
- E. 음악이 예배를 주관하게 하면 안 된다.
- F.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찬송가도 목사가 지정하는 것이 좋다.
- G. 음악은 시종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 음악이 지배하게 하면 안 된다.
- H. 이런 면에서 조명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조명 불필요. 인위적인 시도

II. 구원 초청, 결단의 시간, 영접 기도 등의 문제

- A. “왜 초청을 안했나? 좋은 기회를 놓쳤다 등등”: 미국 교회 예배 상황 설명
- B. 구원 초청을 안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인가?
- C. 1820년대 찰스 피니의 ‘영접의 자리’ 등장, 구원 초청 시작(즉각적인 결단)
- D. 문제 자체가 복잡해짐, 이것은 신학의 문제
 - 1. 사람의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a. 1차적으로 지성, 2차적으로 감정, 3차적으로 의지에 접근해야 한다.
 - b. 롬6:17, 진리, 감정, 의지, 순종은 진리에 근거해서 마음이 움직이면서 나타난다.
 - c. 상상력을 동원하여 감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의지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것도 좋지 않다.
 - 2. 의지에 직접 영향을 주면 때론 위험하다.
 - a. 두려움 내지 심리적 영향 때문에 앞으로 나오면 안 됨
 - b. 존스의 예증, 라디오 30분 정규 프로그램, 어떤 전도자가 옴. 그가 30분 생중계로 설교함. 그리고 찬송을 30분 생중계로 내보내고 그 뒤에 초청을 함. 전도자의 불만 “성과가 없다. 중간에 찬송 30분이 끼어서. 설교를 끝내자마자 했으면 더 많이 응했을 것이다.”
 - c.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 d. 30분 찬양 때문에 결단하는 자의 수가 적었다면 큰 문제, 의지를 강제로 조절한 것이다.
 - 3. 예배에서 앞으로 불러내어 결단하게 하는 것 자체에 큰 비중을 두게 됨
 - a. 존스의 경험: 거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설교, 초청하자 수많은 사람이 나감(분위기)
 - 4. 전도자가 성령님과 그분의 역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 a. 전도자가 초청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
 - b. 아이들 목사, 선교사, 사모 되라고 초청하는 경우
 - 5. 이런 경우의 회심은 대개 피상적인 회심이다.
 - a. “배에 타야 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앞으로 나오라는 말에 나갔다.”, “지금 배에 탔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름”
 - b. 존스의 경험: 주일 저녁 예배, 술 취한 남자, 하루는 많이 울고 나감. 존스는 속으로

- 초청할까 망설이다가 안 함. 다음 날 저녁 기도회 모임에 가다가 그 남자를 만남. “어제 초청했으면 남으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하루도 못가는 회심은 소용이 없다.
- c.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감정이다.
 - d. 웨슬리 “많은 사람이 감화 받은 것 같다. 얼마나 깊이 감화 받았느냐는 하나님만 아신다.”
6. 결코 거짓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키우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7. “앞으로 나갔으니 구원받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됨
8. 의도적으로 성령님에게 보조 수단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 금지
- a. 이것은 잘못하면 중생의 역사를 잘못 인식하게 한다.
9. 중생은 성령님의 역사이다. 성령님이 없이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
- a.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형제들아 어찌할꼬?”라는 외침이 있었다.
 - b. 콩고 부흥에 대한 이야기: 아프리카 선교사 20년, 결단 초청을 했으나 결과가 미약함 그런데 멀리 갔더니 그의 아내가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알려옴, 처음에는 반갑지 않았으나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 설교의 증반도 가기 전에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함, 성령님의 역사
 - c. 존스의 경험,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군인의 편지, 18개월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씀, 런던에 왔다가 몇 차례 존스의 설교를 들음, 그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음을 느끼고 진리를 찾아 어둠의 시기를 지나다가 드디어 진리를 깨닫고 기뻐함. 바로 이것이 필요함
 - d. 존스의 경험: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남
10.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도 사실은 결단을 할 수 없다. “40년 전에 결단한 이래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 a. 이것은 이런 말에 익숙한 환경 때문이다.
 - b.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됨
- E. “그래도 결과가 있지 않느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게 해서 안 된다.
- F. 결단한 사람들의 10% 미만이 결단을 지속한다. 문제가 있지 않은가?
- G. 장기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 H. 초청하지 않는 목사에게는 목사 자리를 주지도 않음.
- I. 또 어떤 경우에는 결단하는 사람들의 수를 미리 예측하고 결과와 비교함
- J. 아무도 성령님의 일을 알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을 예측한다 말인가?
- K. 초청은 진리 즉 메시지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 L. 즉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적용하여 절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 M. 특별히 초청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설교자를 강권할 때에만 한다.
- N. 그리고 언제 목사를 만나 상담할 수 있다고 알려주라.
- O.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 P. 영접 기도 구원(Easy prayerism)과 주재권 구원(Lordship salvation)

설교와 설교자 15

함정과 낭만: 존스

I. 설교자가 같은 설교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하여

- A.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것을 죄라고 하며 크게 놀란다.
- B. '여기서는 같은 설교를 같은 교회에서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 C. 휴가나 초청 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을 뜻한다.
- D. 존스의 말: 같은 설교를 같은 교회에서 여러 차례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E. 어떤 반주자는 '발람과 그의 나귀 설교'를 일곱 번 들음(민22). 거의 암송 지경에 이름
- F.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는 설교를 교회의 요청에 의해 매해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하였다(딤후4:21). Clarence E. Macartney, '원고 없는 설교 하기' 등
- G. 하지만 존스는 이를 반대함
- H. 그러면 같은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
 - 1. 스펠전은 완전 반대, 매 시간 다른 설교
 - 2. 그러나 스코틀랜드 집회에서 실패하자 그 전 주일 설교를 런던에서 받아서 함.
 - 3. 존스가 아는 대부분의 위대한 설교자들은 반복해서 하였다(윌펠드, 웨슬리 등).
 - 4. 그들의 일기에는 설교 본문과 제목이 기록되어 있다.
 - 5.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 자기는 윌펠드의 설교가 새것인지 반복인지 알아맞힐 수 있었다.
 - 6. 어떤 위대한 웨일스의 설교자: 적어도 20번 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함.
 - 7. 그러나 존스는 이 말을 이해는 하지만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음
 - 8. 어느 노 설교자의 지혜: 같은 설교를 다른 데서 3번 함. 불평자가 나옴. 그분을 늘 따라다니는 분, "당신은 그 설교대로 했습니까?", 대답을 못함, "당신이 실천할 때까지 하겠습니까."
 - 9. 존스의 견해: 설교란 반드시 전해야 하는 메시지이며 자체로 완결성이 있고 특정한 형식과 모양을 갖춘 총체이므로 같은 설교를 다른 데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 10. 특히 평상시와 달리 같은 설교인데도 좀 더 선명하게 모든 것이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다. 이런 때에는 반복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 11. 그 이유: 설교자는 자기의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12. 또한 같은 설교라도 하면서 내용이 점점 더 깊어진다. 모든 설교자의 공통적인 체험
 - 13. 간증: 조금 능력이 부족한 설교자가 한 설교자를 흠모함. 총회에 참석했는데 그 설교자가 같은 본문을 읽기에 "그 설교자의 명성이 추락될까 봐 걱정함." 그런데 같은 원고로 완전히 다른 설교가 나옴. 설교가 완숙하게 진행되며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줌. "그분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나는 발전이 없네."
 - 14. "그분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나는 발전이 없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꼼꼼히 한 글자 한 글자 적고 그것만 보면 결코 설교의 발전이 없다.
 - 15. 설교 내용에 익숙하면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 1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전 설교를 다시 하는 것 OK
 - 17. 그러면 한 설교를 몇 번까지 할수 있을까요? 캠벨 목사 "고백은 영혼에 유익하다고 하지요. 오늘 오전 설교는 제가 119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 18. 기계적으로 몇 번까지는 아무도 정할 수는 없다.
 - 19. 그러므로 그 설교가 더 이상 자신을 사로잡지 않으면 그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쇼나 공연이

된다.

20. 존스의 '공연 설교' 경험: 미국의 대규모 성경 수련회,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A부터 Z까지, 시간 내에 마치려고 기계적으로 몰아내기 시작함. 그러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는 듣기 어렵고 설교자의 기억력과 영리함에 의한 천박한 공연이 나옴
21. 존스의 경험: 영국과 미국에서 유명했던 한 설교자와 지역 순회 판매원, 그 설교자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설교함. 판매원은 너무 감동을 받음. 설교 중간쯤의 연극,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단어를 쓸까요?", 고래 "아니 비슷하지만 꼭 맞지는 않네요.", 상어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돌고래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 판매원이 다음 주말에 다른 도시에 갔는데 광고에 그 설교자가 어떤 교회로 온다고 함. 그래서 두말 않고 거기로 감. 같은 본문, 그런데 중간의 같은 부분에서 똑 같은 연극, 별떡 일어나 나감
22. 이런 식의 공연은 안 된다, 설교자는 이미 다 단어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체 연극함
23. 어느 노 설교자, 그리 잘하지는 못했는데 어느 협회에서 설교할 영예를 얻음. 두 명의 설교자가 같이 있었음, 다른 이가 가만 보니 노 설교자가 회중을 자세히 둘러보고 있었다. "뭘 하세요? 전에 들은 사람이 있나 보시나요?", "아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나 보는 중입니다." 이것은 곤란하다.
24. 존스의 경험: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그가 본문을 읽자 옆의 목사가 옆구리를 쿡 찌름. "오늘은 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대부분의 목사와 집사들이 이미 여러 차례 들었고 기사로도 나온 설교
25. "남이 이렇게 하면 화를 내면서 왜 자기는 할까요?"
26. 그 이유:
 1. 게으름, 2. 돌연한 공포: 주말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새 설교를 전할 자신을 잃음. 그래서 다시 반복함,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자주 생기면 문제,
 3. 자만심
27. 그래서 같은 설교를 할 때에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장소, 일시 등).
28. 기록을 남기지 않을 때의 문제: 존스의 경험, 어느 대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과 대담, "기념 예배 때에 어떤 유명한 목사를 모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매우 감명을 받음. 다음 해에도 또 그분을 모심, 같은 제목의 같은 설교, 그 다음 해에도 한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또 모심. 같은 제목으로 같은 설교, 왜 그럴까? 기록이 없었음

II. 설교에도 성격이 있다.

- A. 소설가가 쓰는 소설의 주인공들, "스스로 왔다 갔다 해서 골치 아프다."
- B. 설교도 그렇다. 어떤 설교는 설교가 그냥 두어도 설교자를 이끌고 간다. 설교자는 할 일이 거의 없다. 극히 일부의 설교만, 나의 지난 주 요한복음 3장 설교
- C. 대부분의 설교는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 잘못하면 설교자를 초주점으로 내몬다.
- D. 이런 설교는 처음부터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
- E. 설교는 말과 같다. 잘못 다루면 주인을 떨어뜨린다.
- F. 그러므로 우리 몸을 설교에 맞게 잘 준비시켜야 한다.

III. 남의 설교를 사용하는 일

- A. 그대로 쓰는 것은 부정직한 일, 표절
- B. 듣는 사람은 은혜가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은 도적이요, 강도며 큰 죄이다.

- C. 그러므로 이 경우는 남의 짓임을 밝히고 내게 큰 은혜가 돼서 전하다고 하라.
- D. 스펠전과 한 신학생 이야기: 신학생이 주일마다 여러 곳에서 설교, “잘한다. 스펠전을 베꼈다.” 학장이 추궁하자 아니라고 하자 스펠전과 대면시킴. 스펠전 왈 “겁내지 말고 말하게. 그러면 처벌은 안 받아. 본문, 주제, 대지는 이렇게 했는가?”, “네”, “그럼 이게 자네 설교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설교인가?”, “윌리엄 제이의 설교입니다.” 제이는 19세기 초 유명한 설교자, 2권의 설교집 출간, 스펠전이 깜짝 놀라서 “잠깐 기다리게”하고는 서재에서 책을 빼 옴. 거기에 보니 본문과 주제와 대지가 그대로 있음. 즉 스펠전이 제이의 설교를 카피함. 이에 스펠전은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음을 인정함. 그런데 스펠전의 설교집에도 제이의 설교가 있음.

설교와 설교자 16

함정과 낭만: 존스

- E. 스펠전에 대한 또 다른 예: 그도 침체에 빠질 때가 있었음. 통풍과 함께 온 통증과 우울증,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았을까?’라는 자괴감, 교회를 떠나 고향의 작은 옛 교회에 들어가 앓음. 평신도 설교자가 스펠전의 설교를 함, 스펠전이 올면서 나가 감사 표시, 그러자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표절했어요.” “누구 설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 죄가 다 용서되었고 목사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설교할 수 있습니다.”
- F. 남의 설교를 사용해도 좋은 경우는 오직 이런 때
- G. 존스의 이야기, 1937년에 노령의 전도자 트로터와 함께 미국에 감. 그는 큰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아 큰 구호단체의 책임자, 한 주간에 그는 강연도 하고 일들도 정비하며 여러 사람을 상담하다가 주일 설교 준비를 못함. 주일 저녁예배는 대충 준비, 오전 예배는 미준비,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잠을 자고 친구인 캠벨 물간 박사의 설교를 하기로 함, 이전처럼 찬송, 기도, 예배 인도함, 찬송이 끝나는 순간 캠벨 물간이 나타남. 할 수 없이 그대로 함. 물간이 다가와 설교에 감사를 표시함. “이 사람아, 자네 아이에게 내 옷을 입혔다고 해서 못 알아보았을 리가 있나?”
- H. 존스의 경험, 1936년 서 웨일스에서 가족 휴가, 성공회 교회밖에 없음, 같이 머물던 집 농부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 출석, 교구 신부가 본문을 읽자 아내가 옆구리 찌름, 1935년 마지막 주일의 존스 설교(존스가 새로운 설교자라 두세 종류 일간지에서 실어 줌), 존스는 앉아서 자기 설교를 들음, 그 신부를 안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농부가 굳이 그를 데려와 소개함, 그는 당황하지 않고 존스를 바라보며 이야기함. “반갑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오신 줄 알았으면 예배 때 성경 본문을 읽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텐데요.” 하지만 존스는 비밀을 폭로하지 않음.
- I. 존스의 아내 이야기, 교회에 두 주 연속으로 두 명의 다른 설교자가 음. 그런데 둘 다 똑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함. 누가 저자일까? 둘 다 아니다. 둘 다 카피하였다. 아무리 본문을 바꾸어도 분별력 있는 청중은 같은 설교를 알아본다.
- J. 어떤 사람은 스펠전의 설교를 읽은 후에 설교하는 방식 취함, 근본적으로 No! 그러나 전체를 이해한 뒤 내 것으로 녹여서 자기 교회의 상황에 맞게 설교하는 것은 가능함
- K. 회중을 고려할 때 달리 방법이 없어서 남의 설교를 카피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사례, 웨일스의 한 불쌍한 설교자, 그는 웨일스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본문을 읽더니 “제가 잉글랜드의 런던에 가서……” 이런 식의 거짓말은 안 된다. 그러므로 버릴 것은 버리고 가다듬어 내 것으로 소화해서 써라.
- L. 교회에 친교 모임이 없는데도 “우리 교회 친교 모임에서 토론하기에 좋은 주제는……”, No!
- IV. 설교의 낭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흥분되며 보람 있고 놀라운 일
- A.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느끼며 강단에 서는 기쁨, 한시 빨리 전하고 싶다는 갈망
- B. 설교 내용이 좋아도 다른 데서 되풀이하면 처음과 같지 않을 때가 많음.
- C. 그래서 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설교하는 사역자의 기쁨은 크다. 매 주 새로 하므로. 대단히 중요함
- D. 예배의 불확실성의 낭만, 설교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름, 강연 강사는 앞
- E. 자신 있게 섰지만 형편없는 결과, 그 반대도 가능, 이것이 낭만이다.
- F. 왜 그런가? 예배가 설교자에 의해 통제받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의 낭만
- G.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아래 있음을 확실히 안다.
- H. 또한 역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힘든 상황에서 겨우 섰는데 잘 풀린다.
- I. 설교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윗필드는 설교 후 담으로 흠뻑 젖으면 건강이 회복됨
- J. 존스 역시 설교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힘들어도 세상일과 다르다.

- K.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말씀에 사로잡히면 주일 설교 시간에도 확실히 결과가 나타난다. 원고 작성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대개 회중도 설교에 사로잡힌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많은 감화가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L. 설교를 준비하며 대지들을 만들었는데 한 대지가 그날 설교가 되어 버린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그 다음 대지들이 연속 설교가 돼버린다. 이러 일은 서재에서 준비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설교 중에 눈이 열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일이 고대가 된다.
- M. 원고 작성 시 생각도 못한 것이 설교 중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설교자 자신이 놀란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찾기 쉽지 않다.
- N. 존스의 경험: 한 편 설교 준비, 하다 보니 반만 하게 되어 나머지 받은 그 다음 주에 하게 됨.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목사님이 방문하여 그 설교를 듣고는 크게 감동을 받음. 그분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하셨음을 확신하였다. 존스도 마찬가지였다.
- O. 상황 통제는 주님의 주권이다. 여기에서 낭만이 생긴다. 그 날 설교는 그분을 위한 것이었다.
- P.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속히 모든 것을 잘 배열하여 한 편이 완결되게 끝내야 한다. 쉽지 않지만 경험을 통해 자란다.
- R. 또 다른 낭만: 우리의 설교를 누가 듣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 어떤 이에게는 그 설교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
- S. “어리석은 자들을 비웃으려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된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서 있는데 그 사이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 T.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그리 속속들이 잘 아세요.” 이처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를 얻는다.
- U. 존스의 경험: 한 번도 보지 못한 목사 부부, 핍박이 심한 나라에서 목회하다가 결국 다른 나라로 떠나기로 하고 런던에 잠시 들름. 존스의 설교를 듣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응답을 받아 마음을 바꾸고 다시 돌아감.
- V. 기도 중에 일어난 일: 존스가 남 웨일스에 있을 때 생긴 일, 불쌍한 남자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됨. 그러다가 타락하여 다른 여자를 데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런던으로 도망감. 돈이 떨어지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속이고 공동 명의의 집을 팔아 돈을 챙김. 다시 먼 지방에 가서 살다가 그 여자에게 배반당하고 빈털터리가 됨. 자살 결심, 회개하면 용서받으려는 생각이 있었지만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고 가족들에게 미안하였다. 그래서 템스 강에서 죽기로 결정하고 갔는데 거기 시계탑의 시계가 6시 30분이었다.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시간이구나.” 한 번 더 듣기로 함. 교회 2층으로 들어가는 순간 “믿음을 버리고 다시 타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소리가 들려 왔다. 바로 이 외치는 기도가 그에게 쫓겼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 그는 한 교회의 장로가 되어 수년 동안 섬기다가 이 강의가 책으로 엮이기 전에 죽었다.
- W.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눅1:34-37).
- X. 윌리엄 케리, “하나님께 큰일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큰일 하실 것을 구하라.”
- Y. 이것이 설교자의 낭만이다.
- Z. 설교의 길에서 수많은 벵엘을 만난다(창28:11). 톰슨의 시, “돌 하나만 들어 올려도 천사의 날개가 퍼덕이리라”

설교와 설교자 17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존스

I. 존스가 맨 마지막에 남겨 둔 주제: 성령님의 기름부음

가장 중요한 데 마지막에 다루는 이유: 앞에서 설명한 일들(설교자 준비, 설교문 준비)을 다 한 후에야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임한다.

어떤 이들은 기름부음에만 의존함

그러나 존스는 성령의 기름부음은 준비된 사람 위에만 임하다고 믿음

구약의 예:

1. 갈멜 산의 엘리야, 제단을 세우고 짐승을 잡고 다 준비한 뒤에 불이 임함(왕상18:37-38)

2.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성막의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주님의 영광이 임함(40:34-38)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설교에도 해당된다.

세심한 준비와 성령님의 기름부음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보완, 이것과 저것이 함께 간다.

II. 성령님의 기름부음이란 무엇인가?

우선 당신은 설교 전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구하는가?

이것은 성령님께서 설교자 위에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시며 설교에 능력을 더하시는 것

그 결과 인간이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고 설교에서 큰 능력이 나타난다.

A. 침례자 요한(눅1:15-17): 구약의 대언자들의 공통적 체험,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감이 임한 것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 주셨으며 그것을 선포할 능력도 주셨음을 믿었다.

침례자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자 듣는 사람들이 크게 죄의식을 느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죄를 인정함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메시아야 아니고 앞으로 그분이 오신다고 선포함(요3:30).

B. 예수님 자신: 침례 받으신 뒤 나사렛 회당에서의 일(눅4:18)

즉 요르단에서 성령 강림이 곧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 기름부음(눅3:21-22).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심

C. 주님의 승천 전의 제자들(눅24:46-49; 행1:8), 행1:8은 결국 2장에서 성취됨

이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며 설교자의 자격을 갖추, 기적을 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일부는 변화산 사건 체험, 주님의 부활의 증인, 그럼에도 이것들만으로는 설교자가 되기에 부족하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본질적인 것 즉 성령님의 기름 부음

그 결과 겁쟁이 베드로가 용감해지고 한번에 3,000명이 회개함

D.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의 능력의 획득은 여러 차례 반복된다. 그러나 존스는 이것을 성령세례라고 하여 잘못 가르침. 이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한차례 일어나는 단회 사건이다.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이 있다. 불 세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마 3:11-12)

E.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거듭 거듭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능력 있게 설교하였다.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답하였다(행4:7-8).

F. 행4:29-31

G. 일곱 명 선출 자격(행6:3, 5)

H. 스테반의 죽음(행7:55)

I. 바울(행13:9), 키프로스의 서기오 바울과 함께 하는 동안 마법사 엘루마 사건

J. 사도들의 특별사역 혹은 기적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 이것은 현시대 기적과 크게 다르다.

1. 사도들은 치유 집회 일정을 광고할 수 없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죽 이런 일은 그들의 통제권 밖에 있었다.
 2. 바울이 박수 엘루마를 처리하는 장면, 14장에서 루스드라의 앓은뱅이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
 3. 그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주장하지 못했다. 그분이 임하시면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현시대 은사주의자들과 다른 점이다.
 4. 또 다른 차이점: 사도들은 실패한 적이 없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현시대 은사주의자들: 나으려면 자기 공로, 낫지 않으면 믿음 부족
- K. 바울의 고백(고전2:2-5), 재능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유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함, 그래서 그는 그 당시 그리스 수사 기법 사용 안 함,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L. 고전4:18-20,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설교이다.
- M. 고후4:1-7,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남
- N. 고후10:3-5
- O. 고후12:7-10
- P. 골1:28-29
- Q. 살전1:5, 말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 결과 9-10절
- R. 벧전1:12
- S.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라도 가능하다.
- T. 종교 개혁 시 루터: 강력한 설교자
- U. 조나단 에드워즈, 브레이너드, 윌필드, 웨슬리, 스펠전
- V. 웨슬리의 경험: 전형적인 학자, 미국 조지아 주 선교사, 실패, 영국행 배, 모라비안 교도 가장 먼저 한 일, 1738년 3월에 이신칭의 교리 확립, 그러나 “설교자로서는 실패해서 설교를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모라비아 교도 피터 뵐러(Peter Bohler)를 만남.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는 와 닿지 않으니 설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 가의 작은 모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 바로 이때부터 그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설교하면 하나님께 쓰임.
- W. 그러므로 설교문의 준비와 더불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 X. 이런 일은 회중들도 깨닫는다.
- Y. 또한 이런 성령님의 충만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항상 설교자에게 붙어 있지 않다.
- Z.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전에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
 “그래 원고를 준비했으니 원고대로 하면 되지”
 “오늘이 누군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 III.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 IV. 성령님의 기름 부음, 이것이 설교자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선물이다.
 고전2:1-5
 엡3:20